아트 터미널 작은미술관
중동 작은미술관
솔리골 작은미술관
우리미술관
두드림 작은미술관
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 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우리 동네, 예술을 입다

2016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 성과집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2016년 성과집 — 우리 동네, 예술을 입다


두드림 작은미술관


우리미술관


아트 터미널
작은미술관


중동
작은미술관


솔리골
작은미술관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작은미술관

우리 동네, 예술을 입다

2016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 성과집

작은미술관

2016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 성과집

우리 동네, 예술을 입다

2016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은 미술관이 없거나 미술문화 확산이 꼭 필요한 지역의 공공 유휴 공간을 일상 속 미술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시행 첫 해인 2015년에 전국 곳곳 6개의 작은미술관이 문을 열었고, 2016년 3개의 작은미술관이 추가로 문을 열었다. 우리 동네, 친구네, 집 근처, 고향 골목에 자리 잡은 미술관을 만나보자.

작은미술관
SMALL MUSEUM

우리 동네,
예술을 입다

2016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 성과집


아트 터미널 작은미술관


우리미술관


중동 작은미술관


두드림 작은미술관


솜리골 작은미술관


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

프롤로그 4
작은미술관, 사업개요 및 성과 6

우리 동네, 예술을 입다

아트 터미널 작은미술관 14
중동 작은미술관 36
솜리골 작은미술관 56
우리미술관 78
두드림 작은미술관 100
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 118

프롤로그

‘작지만 친근한’ 우리 동네 미술관, 행복한 변화를 만들다

어두컴컴한 공장 대신 미술관이 들어서자 마을은 점점 생기를 되찾았다. 단순히 도착과 출발의 장소였던 터미널은 한편의 작은 공간에 오가는 이의 감성을 깨울 수준 높은 미술 작품으로 가득하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동네 보건소가 미술관으로 변신하자, 동네 사람들은 발이 닳도록 미술 작품을 구경하러 미술관 문을 여닫는다. 가까이 미술관이 생기리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던 동네 사람들은 그중 아무도 미술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적 없건만, 그 누구보다 공간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작은 미술관 이야기다.

‘작지만 친근한’ 동네 미술관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기쁘게 예술을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진심으로부터 비롯됐다.

먹고사는 데 가려져 늘 뒷전이 되어버리는 예술 그리고 미술. 그러나 정작 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박탈당하면, 예술적 감수성을 잃고 마음은 물론 그들이 속한 공간까지 삭막해진다. 이는 우리가 예술을 일상 속에서 향유해야만 하는 이유이며, 여기저기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그 시설들은 도시에 대부분 편중되어 있어 또 한 번 문화소외 지역을 낳았다.

2015년 처음 시작한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문화 소외 지역에 터를 잡고 구석구석, 많은 사람들에게 미술로써 예술 감성을 퍼뜨리기 위한 작지만 큰 움직임이었다. 첫해에는 여섯 개의 미술관이 새롭게 조성되었고, 2016년에는 신규 미술관 세 곳을 더했다. 더불어, 기존에 조성한 세 곳의 공간이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2016년에는 단순히 공간 조성만이 아니라, 작은미술관의 컨설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작은미술관 네트워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규모는 작지만 '미술관'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만의 성공적인 지속가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의 방향을 조금 더 확립해 나간 해였다.

두 해를 거치며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은 이제 더욱 큰 성장을 위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미술관으로서 우리만의 특별한 역할을 찾고, 무엇을 해나갈 것인지 끊임없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려 한다. 그리고 마침내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할 것이리라 믿는다.

작은미술관, 사업개요 및 성과

우리 동네,
예술을 입다

사업개요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은 시각예술 공간이 절실한 지역에 지역 유휴 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조성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전국 곳곳에 미술문화가 도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되었다.

추진내용

하나, 등록 미술관이 없거나 미술 공간 조성이 절실한 지역에 작은미술관을 조성, 운영하고자 하였다.
둘, 기존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공간 조성과 시설 확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시 및 부대 프로그램 관련 콘텐츠를 확보하고 확대하는 데 집중하였다.
셋, '작은미술관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전시 전문 인력 및 전시 콘텐츠 등이 연계되어 미술관별 정체성 확립, 콘텐츠 수준 및 운영 역량 제고를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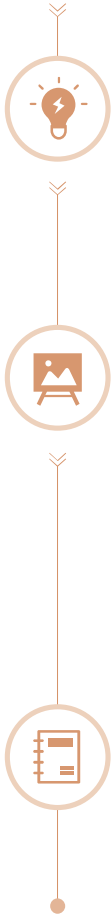
운영 Process

사업준비

- 사업계획 수립
- 작은미술관 세부계획
  사업자문, 컨설팅단 구성 등
- 작은미술관 사업공고 및 접수

모집 및 선정

- 지원 대상 심의
  1차 | **신규** 서류 **재지원** 사업성과 평가
  2차 | 1차 통과지역 대상 신규 조성, 운영 현장 평가
  3차 | 발표 및 인터뷰
  4차 | 컨설팅 및 모니터링
- 지원 대상 지역선정 및 단체별 맞춤형 컨설팅
- 최종 사업계획 확정
  기존 3개 지역 | 두드림 작은미술관(동두천)
  우리미술관(인천)
  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남해)
  신규 3개 지역 | 솜리골 작은미술관(익산)
  중동 작은미술관(대전)
  아트 터미널 작은미술관(정선)



모니터링 및 작은미술관 모형개발 연구

- 모니터링(컨설팅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작은미술관 사업 모형 연구

작은미술관 운영

- 작은미술관 공간 조성
- 작은미술관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 작은미술관 모니터링
- 작은미술관 관계 기관 워크숍

사업종료

- 사업성과 공유
- 사업성과 자료집 제작

숫자로 보는 성과

2017년
3월 말 기준

지역
전국

작은미술관
6 개소

관람객 수
34,384 명

정선 20,183 익산 2,014 대전 2,010
남해 3,873 인천 3,651 경기 2,617

행사전시 건수
29 건 프로그램 94

정선 4
프로그램 4

익산 5
프로그램 10
행사 4

대전 2
프로그램 3

남해 5
프로그램 2

인천 7
프로그램 45

경기 6
프로그램 26

언론보도 건수
154 건

정선 7 익산 54 대전 31
남해 5 인천 47 경기 10

*남해는 개인블로그 포스팅 건수 기재

작은미술관, 성과와 비전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은 한동안 방치되고 있던 지역 보건소, 공가, 장옥, 패션지원센터 유휴 공간 등을 작은 미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2016년에도 지역의 수리조합과 방공호 등 역사적인 장소, 구 주민센터, 지역 버스터미널 등의 유휴 공간을 작은미술관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이 가진 고유성과 특수성을 활용한 미술 전시들이 기획되었다.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가들과 지역민들이 소통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공간에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역주민이 작품과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서 지역밀착형 미술 콘텐츠와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확인하는 새로운 문화 공간의 장소가 되었다. 더불어, 작은미술관을 통해 기획된 총 29건의 전시에 관람객이 작년보다 10,948명 늘어났고 94개의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지역민들이 예술 활동에 참여하였다.

앞으로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을 통해 중앙과 지역 간의 협업을 이끌고 해당 지역의 빈 공공 공간을 미술 공간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문 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체제로 자생할 수 있는 지원 구조를 마련하는 등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나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작은미술관별 사업성과

기관명(지역)	주요성과
두드림 작은미술관 (경기도 동두천시)	· '직조 3부작 시리즈'를 통해 지역의 고유 문화 콘텐츠 개발 · 패션+미술을 통해, 예술가-지역민이 소통할 수 있는 장소적(Anchor) 역할 수행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경상남도 남해군)	· 남해 바래길 제 1코스가 시작하는 곳으로 많은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공간으로 활용 · 지역작가들의 전시 공간으로 활용, 지역주민을 도슨트로 활용
우리미술관 (인천광역시 동구)	· 인천 동구의 골목길을 미술문화 확산의 장으로 활용 · 우리미술관 웹사이트 개설, 마을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기획전시 연계
아트 터미널 작은미술관 (강원도 정선군)	· 공영 버스터미널 지하 유휴 공간을 활용, 터미널 전체를 작은미술관으로 공간화 · 폐광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 도모, 관광객과 거주민이 교류하는 문화 공간의 장소
솜리골 작은미술관 (전라북도 익산시)	· 익산의 구도심, 익산문화재단 내 위치하여 예술가와 지역주민의 공간이 됨 · 수리조합과 방공호를 정비한 후 전시실로 활용하여 역사성, 전시의 다양성, 관람의 재미를 제공
중동 작은미술관 (대전광역시 동구)	· '청춘다락' 연계로 청년예술가 참여가 용이한 환경 조성 · 유휴 주민센터(행정 공간)에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아트 터미널 작은미술관


우리미술관


중동 작은미술관



두드림 작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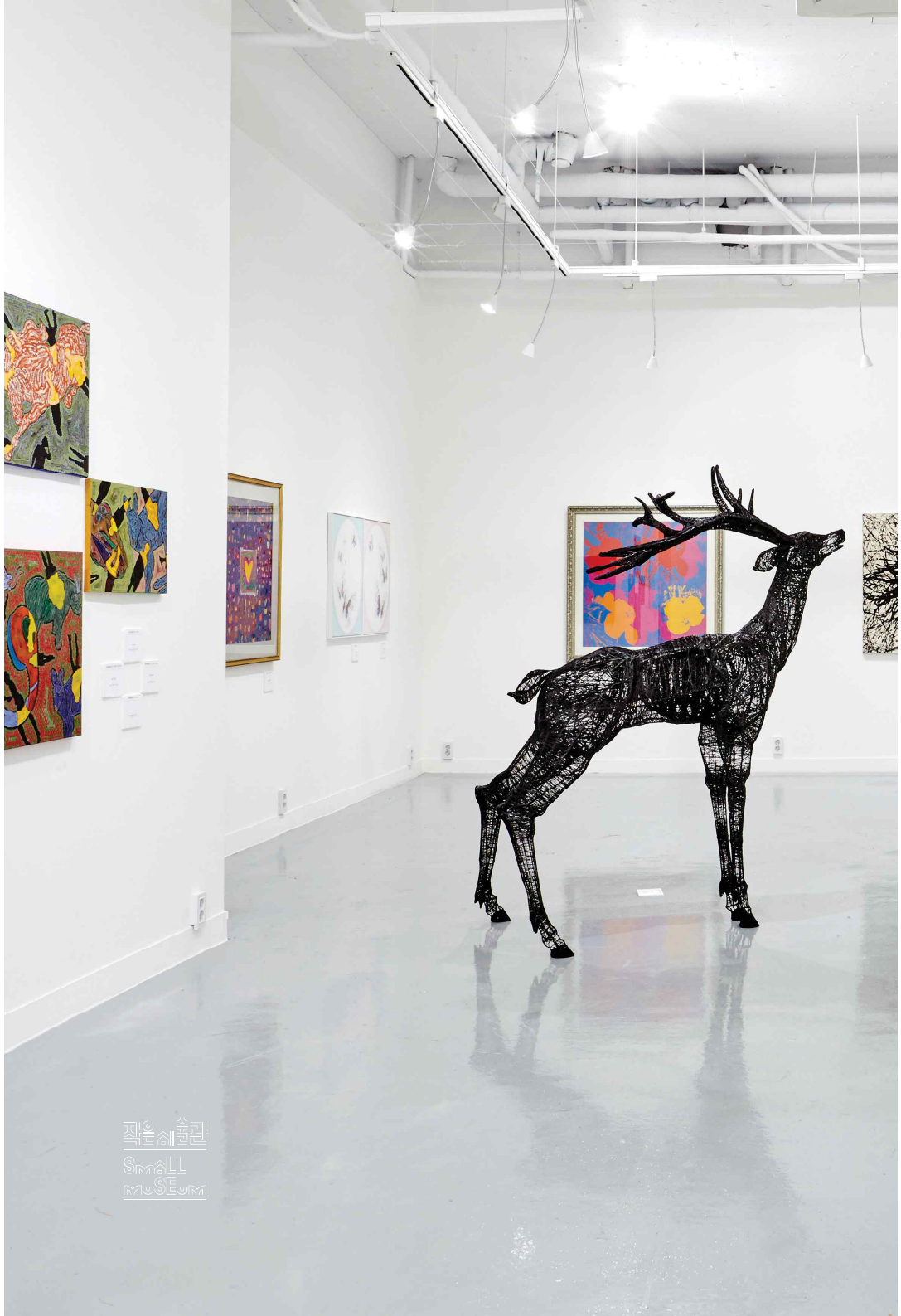

솜리골 작은미술관


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



우리 동네,
예술을 입다

2016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 성과집


작은 미술관
SMALL
MUSEUM



아트 터미널
작은미술관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지장천로 856

http://blog.naver.com/artterminal2016



폐광지역에 피어난
미술 공간에서 희망을 캐다

강원도 정선 고한사북공영버스터미널에 '아트 터미널 작은미술관'이 탄생했다. '2016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이하 2016 작은미술관 사업)'에 선정되어 터미널의 버려진 공간을 새롭게 바꾸었다.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폐광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시각예술 콘텐츠 감상 기회를 제공하는 아트 터미널 작은미술관 이야기를 만나본다.

정선 같이 살기 좋은 곳 놀러 한 번 오세요, 검은 산 물밑이라도 해당화가 핍니다. 아우라지 건널 때는 아우러지더니 가물재 넘어갈 땐 가물 감실 하네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 1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정선 아리랑 중 산세를 표현한 대목이다. 검은 산 검은 물밑의 탄광촌에 '노다지의 꿈'을 품고 정착한 사람들, 생사를 넘나드는 노동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지역민들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아리랑의 노랫말처럼 정선의 고한, 사북 지역은 1960년대 초부터 석탄산업의 융성으로 인해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갱도의 막다른 곳'을 뜻하는 '막장'을 찾은 광부들을 일컬어 산전수전 다 겪고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왔다고 해 '막장인생'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실은 위험한 노동인 만큼 보수가 좋았기 때문이었다. 검은 노동의 결실은 한국 최대의 무연탄을 생산하며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수출강국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과 함께 수많은 탄광들이 문을 닫았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퇴락한 폐광촌으로 변해갔다.

이후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지역의 오랜 노력 끝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가 들어섰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연 매출 1조 5000억 원, 매년 500만 명이 방문하며 강원도 최대의 경제생산 특구로 거듭났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

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하기 마련이다.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강원랜드 인근 쪽방, 찜질방 등에서 지내는 '카지노 노숙자'를 탄생시켰고, 도박중독으로 말미암아 정선군의 자살률은 전국의 2배 수준이라는 오명을 안기도 했다. 카지노와 함께 '제 2의 막장인생'으로 향하는 사람들, 지역경제 활성화만을 강조하다 놓쳐버린 것들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했다. 소박하지만 아라리 가락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다는 소망은 2016 작은미술관 사업을 통해 실현되었다.

문턱은 낮추고 접근성을 높인 시각예술

정선에는 하이원리조트를 비롯해 광부의 일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탄광문화 관광촌, 폐광을 예술테마파크로 승화시킨 삼탄아트마인, 불교문화의 성지인 적멸보궁 정암사 등 각종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 명소가 많다. 이 장소들은 역사적 스토리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정선에는 여러 문화 공간이 존재하지만 밀도 있는 시각미술영역의 전문 전시 공간은 찾아보기 힘들다. 미술관의 50% 이상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롭게 조성되는 작은미술관은 단순히 작품을 설치해 두고 알아서 찾아오길 기다리는 차원의 영역을 뛰어넘어 지역주민과 교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예술은 어렵다는 편견을 버리고 누구나 쉽게 향유할 수 있는 문턱 낮은 공간을 찾아 출발했다.

석탄을 나르던 기차가 사라진 폐역사를 따라 이동하는 레일바이크는 정선의 석탄노동 현장을 따라 이동한다.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라는 판단으로 구절리역, 아우라지역, 나전역 등의 기차역을 방문해 공간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미 지역 홍보관으로 쓰이고 있거나 여유 공간이 없었고 실제

로 다양한 사람들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찾아 고한읍과 사북읍의 중간에 위치한 고한사북공영버스터미널로 발길을 돌렸다. 이곳은 정선군이 소유하고 있는 시외버스터미널로 전국 22개 도시를 연결해주는 노선이 운행되는 교통의 관문이다. 서울에서는 20~30분 간격으로 배차가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왕래 인파 때문에 전시 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듯 보였지만 마침 결로현상이 심해 비워둔 지하 유휴 공간을 발견했다. 폐업한 매점의 흔적이 남아있는 지하와 통로, 터미널 외부의 사인 등을 새롭게 디자인하기로 결정하고 정선군의 공간 협찬을 받아 2016년 8월부터 협의에 들어간 후 시설공사를 진행했다. 습기가 심했던 지하에는 누수와 방수공사를 진행했고 벽면에는 배수로를 설치했다. 또한 냉·난방기를 활용해 미술 작품에 최적화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정선아리랑과 함께한 아트 터미널 작은미술관 개관식

2016년 11월 19일 토요일, 아트 터미널 작은미술관 개관식이 열렸다. 아리랑의 본고장인 만큼 정선군립 아리랑 예술단들이 축하 공연을 펼쳤고, 고한사북공영버스터미널에는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우연히 터미널을 찾은 여행객들과 지역주민들도 1층 대합실과 매점 앞에 모여 신기한 듯 축하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터미널 속 유휴 공간이 미술관으로 거듭났다는 점에서 많은 언론의 관심이 이어지기도 했다.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조성, 운영되는 것이지만 이곳은 특별히 지역예술인들로 구성된 아트라인협동조합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을 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본식 진행은 운영 단체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문화사업팀이 맡았다. 재단 외에도 협력 단체인 아트라인협동조합, 각계 미술관 관계자, 작가들이 참석해

개관식 자리를 빛냈다. 정선군의 진길우 의원은 "정선군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아트 터미널 작은미술관은 고한, 사북읍민들의 큰 보람입니다. 개관까지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아트라인협동조합의 지주대 이사장은 "전국에 있는 미술관과 교수, 작가들이 흔쾌히 미술품을 보내주신 덕분에 무사히 개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시설을 고치는 데 고생하신 설비기사님과 관리소장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예술을 살리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2016 작은미술관 사업 전시기획을 총괄한 이명환 감독은 "여러 갈래의 이야기가 입혀진 아리랑이 세계로 뻗어나가듯 다양한 지역으로 연결된 터미널이 가진 의미가 아리랑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시각미술가들과 지역 답사를 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아끼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픈하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라고 기획 소감을 밝혔다. 예술가의 열정을 다해 기획한 미술관의 성격을 보여주듯 멋진 시각예술 작품의 아우라가 전시장을 가득 메웠다. 이번 개관전을 시작으로 이곳은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탄을 자아내는 다양한 미술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정선의 공간, 문화, 역사, 지형을 재해석하다

첫 번째 섹션인 개관전 <감성배송·택배>는 2016년 11월 19일부터 약 20일간 진행됐다. 터미널은 출발과 도착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다. 과거 고한, 사북 지역에서 캐낸 검은빛의 석탄들이 경제 부흥을 일으키며 세계 각지로 배송되었다면, 현재는 다양한 작품과 함께 미술가들의 감성이 택배를 통해 이곳에 배달된다. 이동을 위해 터미널을 찾은 주민들과 여행객들이 '예기치 않은 공간'에서 예술 작품을 만나고, 이를 통해 또 다른 감성을 마주하며, 그 감성은 사람들

마음에 머무르다 또 함께 이동하고, 다시 도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첫 전시에는 총 27인의 시각미술가가 참여했는데, 지역 출신 작가는 물론 세계 미술 거장인 앤디 워홀의 'flowers', 데미안 허스트의 'opium' 작품도 만나볼 수 있었다.

두 번째 섹션인 <By The Way>를 위해 21인의 시각미술가들은 부지런히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이 전시는 동참한 지역주민들과 감성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추출한 스토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다. 주민들은 지역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작가들은 이를 작품에 반영했다. 작가들은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폐광된 동원탄광과 사북탄광을 방문해 과거의 기억을 기록하기도 했다. 태백에 사는 사진집 <아버지는 광부였다>의 박병문 사진작가와 사북읍에 사는 시각미술가 최승선 작가 등 지역 거주 작가들도 참여했다. 이처럼 지역의 역사와 스토리를 녹인 이 전시는 2016년 12월 16일부터 2017년 1월 9일까지 펼쳐졌다.

세 번째 섹션 <아라리 플랫폼·POP>은 2017년 1월 10일부터 25일간 열렸다. 정선아리랑의 노랫말은 무려 700~800여 수에 이른다. 시대와 환경에 맞추어 지금도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양의 랩(rap)과 비슷한 점이 많다. 작가들은 이에 주목하여 '아라리 랩'을 주제로 삼고, 본인의 개성을 담아 다양한 팝아트 작품을 제작했다. 이들은 우선 정선아리랑의 대표적인 발상지인 아우라지와 아리랑센터를 답사하고 정선아리랑 가사를 수집했다. 처녀, 총각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는 아우라지는 송천과 골지천이 어울려 하나가 되어 흐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작가들은 답사 후 영상, 사진, 설치 작품, 퍼포먼스 등 각자의 방식으로 아리랑을 표현했다. 폐광지역의 상징인 갱도, 뱃놀이를 표현한 작품들이 눈에 띄었고, <후쿠시마 5년의 생존>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최세영 작가는 조세희의 작품집 <침묵의 뿌리>에 나오는 '사북의 소녀'를 영상으로 재현했다. 다시금 역사를 돌아보고 도

시 재생으로 누락된 기억을 채워 넣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마지막 섹션 <구불구불-판타지>는 정선의 굽이굽이 고갯길을 주제로 2016년 10월부터 진행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품을 모아 진행한 전시였다. 정선에는 36굽이를 뱅글뱅글 돌면서 내려간다 하여 병방치 또는 뱅뱅이재라 불리는 길이 있다. 2017년 2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펼쳐진 이 전시는 정선의 특수하고 험준한 지형처럼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삶을 표현하는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백남준의 석판화, 시그마 풀케의 작품, 영국 테이트 모던에 설치되었던 이승택의 '종이나무'를 한 공간에 전시해 신인 작가들에게 더욱 큰 성취감을 안겼다.

지역민들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예술 체험

기획전이 진행되는 동안 매주 금요일에는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고한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과 함께한 첫 번째 워크숍에서는 택배 스템프를 응용한 고무판 아트 체험을 진행한 후 결과물을 지하통로에 전시하기도 했다. 유난히 반응이 뜨거웠던 이 워크숍은 미술관에서뿐 아니라 사북어린이집에서도 진행했다.

이후 한 학생은 워크숍 참여를 계기로 미술에 부쩍 관심을 갖게 되어 부모님과 함께 미술관에 자주 방문한다. 또, 지역 정체성을 주제로 스텐실을 제작했던 한 주민은 "어려울 것만 같았는데, 시각예술이라는 다양한 장르를 경험하며 감성이 자라난 것 같다"며 기뻐했다.

모두에게 놀라움을 준 워크숍도 있었다. 세 번째 전시 중 정선군립요양원의 지적장애우 열여섯 명과 함께한 체험이었다. '각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을 선택해 그림으로 표현하라'는 미션 아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중 한 장애우의 그림을 보며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세계적 천

재 화가 요한 하우저가 바로 가까이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대 이상의 표현력을 가진 인재였다. 이처럼 작은미술관은 누군가의 숨어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기도 하고, 감성을 한껏 일깨우기도 했다.

예술 에너지를 충전하는 힐링 공간

프랑스에서는 생활편의시설과 문화 공간의 구성에 따라 지역별 주민세가 달리 매겨진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시설과 문화적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특히나 정선은 시커먼 먼지로 진폐증이 유발되고, 도박 공간이라는 불편한 인식이 은연중에 깔려 있다. 도박치료 프로그램을 미미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골치 아픈 문제들은 우선 개인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몫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미술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럴듯한 외관을 가진 미술관은 아니지만 문화 사각지대에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곳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시 소식을 듣고 달동네 판자촌 에서부터 찾아오는 주민들, 기획전을 위해 기꺼이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는 소박한 모습들이 바로 그 증거다.

작가들은 그 모습에서 많은 감동을 느꼈고,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스토리텔링, 주민 참여 전시, 아이들과 함께한 체험을 통해 작은미술관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다. 작은미술관은 앞으로 지역을 떠나 활동하는 작가들이 애향심을 갖고 돌아와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에게 희망이 되는 공간이 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며 에너지를 충족하듯 이곳이 자연스럽게 오가며 시각미술이라는 영양소를 공급받고, 예술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

“공공미술의 힘을 느낍니다”

아트 터미널 작은미술관 총괄기획자 | 이 명 환

김원근 작가의 작품 ‘스마트 맨’을 섭외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석탄과 도박으로 상징되는 지역의 경직된 정서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매력을 가진 작품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충무로 로드미술관 프로젝트에 전시되어 있던 작품이었는데, 정선 주민들에게도 감상의 기회를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전시 이틀 전에 극적으로 섭외가 되어 대합실 출입구 택시정류장 앞에 설치하게 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택시 운전자와 승객들, 전시장을 찾는 지역민들과 여행객들은 ‘스마트 맨’을 보고 얼굴에 웃음을 머금더군요. 공공미술의 힘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공동의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기능만을 강조해 유명하고 훌륭한 작품을 설치한다고 해도 그 지역의 환경과 스토리텔링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가치를 지닐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을 초월한 미술, 진보적인 작품도 환경과 상호작용을 이룬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한사북공영버스터미널에 비워둔 유휴 공간을 정선군의 공간 협찬을 받아 2016년 8월 협의를 시작으로 미술 작품에 최적화된 전시환경을 마련했다. 사진은 작은미술관 외관 모습이다.



정선군의 공간 협찬으로 조성된 옥외 사이트다. 조형물은 <감성배송·택배>전의 김원근 작가 '스마트 맨'과 김인태 작가 '부자상'이며, 우측 아래는 <아라리 플랫폼·POP>전 박시동 작가의 'Loving', 심병건 작가의 'pressed drawing' 이다.




재 설 함

2016년 11월 19일 열린 아트 터미널 작은미술관 개관식에서 정선군립 아리랑 예술단이 축하 공연을 펼쳤다. 덕분에 고한사북공영버스터미널에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AMERICANO


미술터미널
속보



2016년 11월 19일에 열린 개관전 <감성배송 · 택배>를 시작으로
두 번째 섹션 <By The Way>, 세 번째 섹션 <아라리 플랫폼 · POP>,
네 번째 섹션 <구불구불-판타지>를 차례로 진행했다.




Capitalism
Capitalism
follow
me









아트 터미널 작은미술관은 우연히 터미널을 찾은 여행객은 물론 지역주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시각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제공하며 감성을 한껏 일깨워주고 있다.









세 번째 섹션 <아라리 플랫폼·POP>은 '아라리 랩'을 주제로, 정선아리랑의 대표적인 발상지인 아우라지와 아리랑센터를 답사한 작가들이 영상, 사진, 설치 작품,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개성을 담아 아리랑을 표현해냈다.


작은 미술관
SMALL
MUSEUM



중동
작은미술관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196번길 48 | dcaf.or.kr(대전문화재단)



추억을 담은 예술로 가까이 소통하다

한때 성황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한적한 동네가 되어버린 대전 동구 중동.

이곳에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 2월 작은미술관을 열었다.

미술관 조성 준비부터 개관까지의 생생한 이야기를 만난다.

대전역에 드나드는 사람들, 골목마다 자리한 인쇄소와 한약방을 찾은 상인들, 극장을 찾아 나온 젊은이들로 넘쳐나던 동구 중동. 대전 원도심 중 한 곳인 이곳은 1950년대에 대전역이 개통하면서 큰 성황을 이루었다. 역과 관공서가 자리해 있고 상인들이 많던 곳이라 자연스럽게 인쇄업이 발달하여 수백 개의 인쇄소가 모여 있는 인쇄거리가 형성되었으며 서울 충무로, 대구 남산동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인쇄거리로 꼽히며 크게 성장하기도 했다.

여전히 이곳에는 인쇄소와 한약방이 모여 있고 새벽마다 건어물 시장이 열리는 등 상업이 유지되고 있지만 일이 예전처럼 많지 않아서 대부분 가게가 오후 다섯 시면 문을 닫는다. 더욱이 1980년대 이후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역 안에 연결된 지하철을 통해 신도심으로 바로 이동하고 몇몇 주민들도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사람이 많이 드나들지 않는 한적한 동네가 되었다. 주민들이 문화 갈증을 해소하던 오래된 공간인 신도극장과 아카데미극장도 모두 문을 닫았으며 이렇다 할 구경거리가 없으니 젊은 사람들은 더욱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역사와 추억이 가득한 원도심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시에서는 원도심을 다시 살리기 위해 대전역세권과 옛 충남도청, 중앙로거리 등을 개발하여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한의학과 인쇄소거리를 재조성하여 골목특화거리로 만드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시에서 빈 곳으로 방치되던 옛 중앙동 주민센터를 사들여 리모델링한 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했고 대전시와 대전문화재단이 협의하여 이곳 1층에 작은미술관을 만들었다. 조용하던 마을

이 예술가들의 활기와 새로운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으로 조금씩 생동하기 시작했다.

역사와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

옛 중앙동 주민센터 건물은 많은 사연이 담긴 공간이다. 이 마을은 1900년 초에 대전의 중심 도시 중 한 곳이었고, 이후에 번영과 쇠락을 거듭했으며 그 역사를 주민센터가 함께했다. 주민센터를 지을 때는 주민들이 십시일반 기부금을 보태기도 했다. 2010년 초반에 주민센터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이후 2013년까지 보훈회관으로 사용됐다. 지하 1층에는 헬스장, 2층에는 문화교육시설, 3층에는 노래방 등이 있었고 언제나 주민들이 애정으로 손수 건물을 관리했다. 2013년 이후에는 지하 헬스장만 남아 있는데 여전히 매일 이른 아침마다 헬스장 관장과 회원들이 앞마당을 쓸고 건물 곳곳을 수리하며 관리하고 있다. 이곳은 주민들의 추억 창고이고 자부심인 셈이다.

오래되어 허름하지만 온정이 가득한 공간. 그런 건물을 새롭게 바꾼다고 하니 응원하는 주민도 있었지만 내 것을 빼앗긴 것처럼 아쉬워하며 '오래된 친구 같은 이 공간에 이제는 편하게 드나들 수 없는 건가' 걱정하기도 했다. 작은미술관은 주민들을 위한 곳이기에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너무 갑작스럽지 않게, 조금씩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했다.

주민들과 한 발짝 가까워지다

건물을 본격적으로 리모델링하기에 전에 아직 주민센터의 모습이 남아 있는 곳을 예술 작품으로 채우는 프로젝트를 열었다. 기존 공간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새로운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 위한 아이디어였다. 예술가뿐 아니라 주민과 지역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 작품으로 1층과 2층을 다채롭게 꾸미기

로 했다.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작가들은 주민들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담기 위해 중동 골목길을 거닐며 주민들을 찾아다니거나 미술관 앞마당 벤치에 함께 앉아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술관 앞 벤치는 주민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기에 '젊은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일을 한다'는 소문이 마을에 금세 퍼졌다. 주민들은 "미술관이 뭐하는 곳이냐"고 묻기도 하고 "서예나 동양화가 진정한 예술 아니냐"며 도전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대전예고 학생들이 작가와 함께 미술관 한쪽 공간을 채우는 시간도 뜻깊었다. 학생들은 알록달록한 물감을 벽에 던지고 맨발로 바닥에 칠하며 수험생 스트레스를 풀었다. 그날은 종일 깔깔대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건물 밖으로 퍼졌고, 주변을 지나던 할머니는 "아주 오랜만에 아이들 떠드는 소리를 들어본다"며 미소 지었다.

중동 마을과 예술의 첫 만남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16년 10월 11일, <중동을 비추다–예술가의 방>전을 열었다. 1층 방 세 개는 각각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의 결과물, 2층에는 열 명의 예술가가 각 방에 중동 풍경을 각자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전시로 꾸몄다.

행정 공간이었던 건물에 예술이 첫발을 들였다. 반듯하게 나뉘어 있던 내부 공간을 허물고 미술관으로 탈바꿈하기 직전, 헐벗은 콘크리트 공간에 중동의 이야기들이 가득 찼다. 형광등에 붉은 셀로판지를 덧대어 예술적 분위기를 한껏 연출하기도 하고, 기존 주민센터의 물품들을 그 자체로 오브제로 활용하여 공간을 꾸미기도 했다. 또 한쪽에서는 작가들이 촬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주민들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껏 왁자지껄 동네를 누비며 준비한 것들로 전시를 꾸민다고 하니 궁금한 마음에 방문하여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곳곳을 둘러보았다.

전시를 자유롭게 둘러본 후, 건물 앞마당에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했다. 대전문화재단 담당자는 "지금까지 행정 공간으로 사용하던 이곳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술가들에게 맡겼다. 예술가들의 상상력으로 이 공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작은미술관 개관 후에도 활발한 문화공간으로 쓰이길 바란다"고 말하며 작은미술관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었다.

이어서 2층 전시 방 중에 제사방처럼 꾸며 놓은 성구 작가 방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옛 이불보와 밥그릇, 향 등으로 꾸며 놓은 작은 방에 모두 모여 작가가 고사를 지내는 간단한 퍼포먼스를 관람하고 다시 마당으로 이동했다. 뮤지션 '동굴트리오'의 연주 공연으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관객들은 바닥에 자유롭게 앉거나 빙 둘러서서 손뼉 치고 웃으며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 후에는 동굴트리오 중 한 사람이 한복으로 갈아입고 행사 초반에 퍼포먼스를 했던 방에서 또 다른 퍼포먼스를 펼쳤다. 고사상에 절을 하고 천 원짜리 지폐를 물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직접 맛을 본 후, '돈맛을 보고 싶은 사람'에게 맛보기를 권하는 흥미로운 퍼포먼스를 모두 숨죽여 지켜보았다. 이후에는 옥상에 마련한 '옥상에서 바라보는 중동'이라는 주제의 칵테일 다과 파티를 즐기며 모든 행사를 마무리했다.

각양각색의 중동 이야기를 담다

한 해가 지나고 2017년 2월 2일, 드디어 중동 작은미술관을 정식으로 열었다. 개관전시로 마련한 <중동마을에는 사연도 많지>는 이전 전시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공간의 변화에 상실감을 느낄 주민들을 위로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이 전시는 작은미술관으로 새롭게 태어난 1층 공간, 그리고 아직 다른 공간으로 준비 중이라 철거한 상태로 있는 2층과 3층에서 열렸다. 주민들의 기억과 향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담는 전시를 만들기 위해 중동에 추억이 있는 작가들을 초청하여 전시를 꾸렸다.

1층 미술관 한쪽에는 최주희 작가의 '중동풍경' 시리즈 작품이 걸렸다. 작가가 한때 대전역에서 통역사로 근무하며 느꼈던 이 지역의 기억을 작품에 담았다. 또 다른 벽에는 작가들이 마을주민들과 함께했던 순간을 담은 사진을 전시했다. 미술관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넓은 공간은 '어른들을 위한 놀이방'이라는 주제로 테이블과 의자, 장기판 등을 두어 누구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미술관을 정적인 곳이 아닌 자연스럽게 놀고 차도 마시며 즐기는 곳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층 전시장에는 중앙동에 대한 다양한 사연을 담은 작품을 전시했다. 그중 김해민 작가의 영상 작품인 '중동사념'에서는 한 인물이 예전 흔적이 남아 있는 중동 골목길을 배회하며 과거를 추억하는 모습과 중동의 다양한 과거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다. 관객들은 옛 기억에 빠져 한동안 영상에 빠져들었다. '이유있는 공간'팀의 작품인 '중동의 소리와 움직임'은 작가들이 두 달가량 주민들을 만나 나눈 대화를 담은 기록물이다. 주민들의 중동에 대한 기억과 추억, 현재 심정 등을 담았다. 이 작품은 앞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할 참여형 예술 프로젝트의 소중한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3층 전시장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명상하듯 작품을 관람하는 분위기로 꾸몄다. 해가 비치는 창가에 위에서 아래로 길게 걸려 흔들리는 한지들은 박용선 작가의 '여기, 어딘가의 그곳'이라는 작품이다. 관객들은 한지 사이를 거닐며 한지의 부드러운 촉감과 은은하게 풍기는 향에 빠진다. 고정원 작가의 'ㅂㅗㅎㅜㄴ' 작품은 중동 지역의 예전 한의원, 인쇄소, 영화관, 식당 등에 쓰였던 간판

글씨들을 바닥에 하나하나 늘어 둔 것으로, 관객들의 소박한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노의정 작가의 '상처받은 인형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안에서 진솔하게 느끼고 생각해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총 스물한 명의 작가들이 1층부터 3층까지 공간을 중동에 대한 사연과 기억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들로 알차게 채워주었다.

사람 냄새 나는 미술관을 꿈꾸다

개관실 날, 행사가 끝나고 동네에 개관 기념 떡을 돌렸다. 인쇄소, 건어물가게, 세탁소, 한약방, 식당 등 중동 작은미술관과 특히 더 가까운 이웃이 될 주민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처음 이 동네에 들어와서 미술관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보였던 무뚝뚝한 얼굴들이 이제는 모두 웃는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 동네에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일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져야 하는 일이었다. 그런 깨달음 속에서 중동 작은미술관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벌여야 할지 점점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갔다.
중동 작은미술관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중동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드로잉, 사진, 영상,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동을 조망할 것이다. 전시뿐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도 다양하게 펼칠 계획이다. 작품이 무엇인지, 예술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미술관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르던 주민들도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주민들이 미술관을 편하게 여기며 언제든 놀러 올 수 있도록 하려면 꾸준히 소통해야 한다. 미술관 한쪽에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다. 그곳에 마련된 장기판과 바둑판이 닳도록 쓰이는 미술관, 주민들의 사랑방 같은 미술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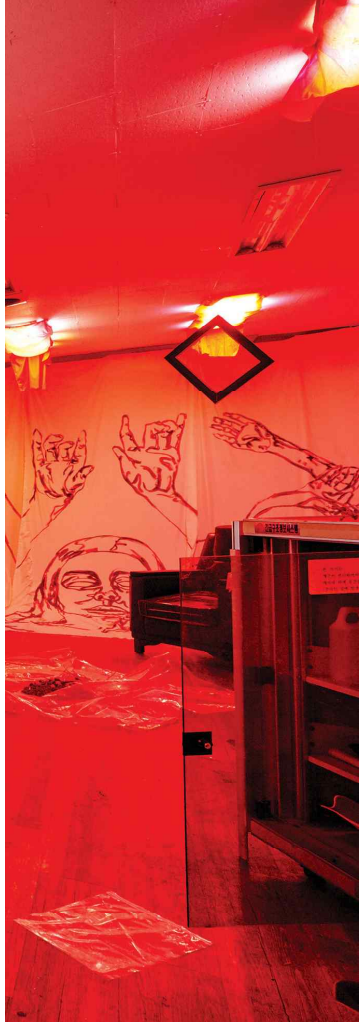
“함께해주신 고마운 분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펼쳐질 즐거운 일을 기대해봅니다”

대전문화재단 담당자 | **박 혜 성**

공사장에 준하는 전시장에서, 철거 전의 사무실 같은 ‘방’에서, 찬바람 몰아치는 야외의 골목길에서, 쉽지 않은 환경에서 선뜻 전시하겠다고 작품을 준비해주신 작가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 그보다 더 쉽지 않은 일인 기획을 맡겠다고 해주신 두 분의 전시기획자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만만치 않은 공간이라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모두가 다 내 일처럼 나서 주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심한 듯 무뚝뚝한 표정으로 은근슬쩍 저희를 챙겨주셨던 강 관장님께도 꼭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중동 작은미술관의 첫 번째 해는 정말 ‘사연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 해는 이제 더 즐거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해봅니다.



2016년 10월 11일, <중동을 비추다-예술가의 방>전.
내부 공간을 허물고 미술관으로 탈바꿈하기 직전, 1층 방 세 개는 각각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의 결과물, 2층에는 열 명의 예술가가 각 방에 중동 풍경을 각자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전시 등 중동의 이야기들이 가득 찼다.








YOU DON't KNOW
I Hate


중동을 비추다
예술가의 방
10.11 Tue 11:00
10.24 Mon 19:00




문화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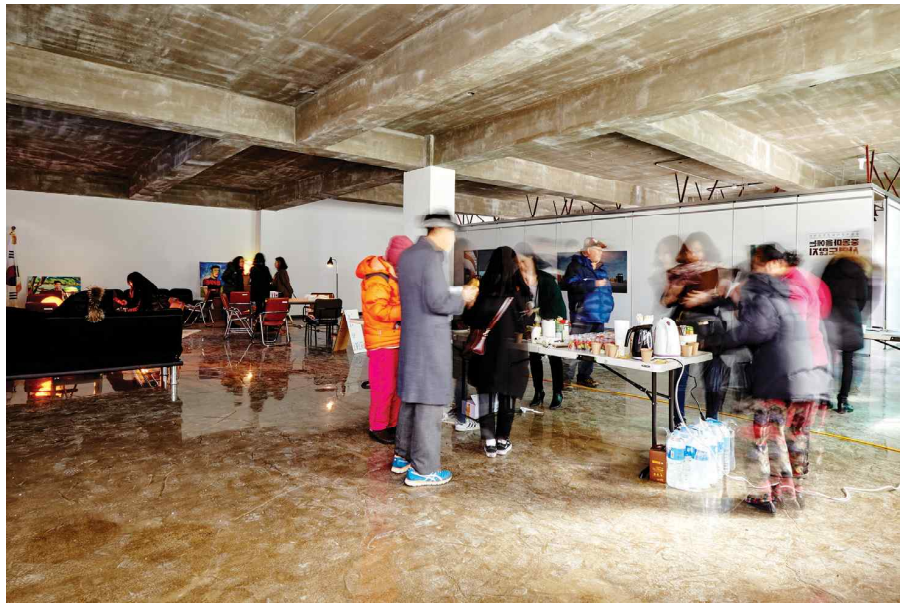




뮤지션 '동굴트리오'의 연주 공연, 제사상처럼 꾸며 놓은 2층 성구 작가방에서의 흥미로운 퍼포먼스 등으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했다.



2017년 2월 2일, 중동 작은미술관의 개관전시 <중동마을에는 사연도 많지>가 정식으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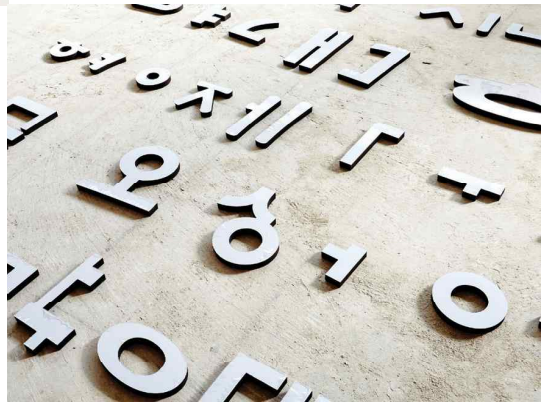

중동 작은미술관프로젝트
중동마을에는
사연도많지





개관전시 <중동마을에는 사연도 많지>는 주민들의 기억과 향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담는 전시를 만들기 위해 중동에 추억이 있는 작가들을 초청하여 전시를 꾸렸다.





관객들의 소박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고정원 작가의 'ㅂㅗㅎㅜ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안에서 진솔하게 느끼고 생각해보자는 의미를 담은 노의정 작가의 '상처 받은 인형들' 등 총 스물한 명의 작가들이 1층부터 3층까지 공간을 중동에 대한 사연과 기억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들로 알차게 채워주었다.








작은 미술관
SMALL
MUSEUM



솜리골
작은미술관

전북 익산시 평동로1길 28-4 익산문화재단 內 | iscf.or.kr(익산문화재단)



주민의 일상이 곧 예술이 되는 공간

익산 평화동에 있는 솜리골 작은미술관은 '2016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이하 2016 작은미술관 사업)'에 처음으로 선정되었다. 한때 빛났으나 이제는 재개발을 앞둔 삭막한 동네에 생기를 불어 넣고, 곧 사라질 유무형의 역사를 주민들과 함께 모으기 위해 탄생한 미술관. 이 작은 공간의 이야기를 만난다.

1943년 김제에서 태어났습니다. 1968년에 강춘화 님과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1978년에 현 문화예술의거리라 불리는 이곳에 동방직물을 개업하여 1남 3녀를 키웠습니다. 1990년대에 참으로 사업이 잘되어 번창했습니다. …… 그러다가 2000년 이후부터는 특별한 손님들만이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고 주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모직은 역시 옛날에 나온 모직이 참으로 질과 보온성 면에서 훌륭합니다. 우리 가게 처럼요. 우리가게가 오래되어 볼품없어 보여도 우리에겐, 또 찾아주는 특별한 손님들에게는 훌륭한 존재입니다. 제품 품목은 와보시면 압니다. 언제나 저의 사랑하는 와이프 강춘화 님이 손님들을 반겨 줄 것입니다.

익산시 중앙동에 자리한 동방직물 사장님이 손수 쓴 자신의 이야기는 주민 전시에 참여하며 직접 꾸미고 만든 명함에 고스란히 담겼다. 참으로 간략히 서술한 이 몇 줄의 문장을 누군가는 단순한 개인의 역사라 하겠지만, 이 안에는 동네의 역사가 함께 담겨 있다.

중앙동 일대는 익산의 중심이었다. 이제 구시가지라고 불리는 이곳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시민 모두가 오가는 핫한 장소였다. 기차역에는 한때 하루에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오갔으며, 극장, 양장점을 비롯한 각종 가게들이 즐비했고, 재래시장도 구역별로 번성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점차 주변 동네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자리를 메

우는 도시화가 진행되며, 이 오래된 동네의 화려한 역사도 막을 내렸다. 한때 잘나가는 곳에 가게를 차린 젊은 주인들은 이제 빛바랜 상점을 지켜나가는 동네 어른이 됐다. 동네의 젊은 시절, 동네의 나이든 시절을 함께한 것이다. 중앙동은 이제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시가 조성한 '문화예술의거리'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했다. 각종 공연을 벌이고, 젊은이들이 아트마켓을 열기도 한다. 중앙동과 바로 맞닿은 평화동 일대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을 위해, 그리고 도시 쇄신을 위해 변화할 때가 온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 깊숙이 스민 주민들의 추억까지 모두 사라져야 할까?

소소한 기억이 모여 역사가 된다. 오늘날 익산이 있는 것은 어쩌면 그 공간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발자취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시간이 멈춘 듯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동네, 기억이 사라져가는 동네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색다른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2016 작은미술관 사업을 만난 것은 중요한 터닝포인트였다. 예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잠자는 동네를 깨우고, 주민을 만나며 동네의 기억을 아카이빙 하고, 시끌벅적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수탈의 공간, 미술관이 되다

작은미술관 조성이 의미 있는 이유는 버려진 공간을 활용한다는 데 있다. 특히 아픔이 깃든 공간이라면 이 같은 변화는 더욱 의미 있다. 예술이라는 매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공간을 창조의 에너지로 가득 메운다. 버려진 지역에 예술가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만의 문화가 창발하고 되살아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는 솜리골 작은미술관이라는 타이틀을 당당히 달고 화사하게 변신한 이 공간은 사실 일제강점기 수탈이 행해지던 고통의 공간이었다. 만경강 일대 비

옥한 평야에서 나는 쌀을 일본에 효율적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기관이었던 익옥수리조합. 1930년대 건축된 이곳은 현재 본관이 익산문화재단 건물로 쓰이고 있고 부속 건물이었던 창고가 작은미술관으로 바뀌었다. 평화동에 자리한 이 빨간 벽돌 건물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근대등록문화재 제 181호로 지정됐다. 이국적이고 오래된 느낌이 물씬 돌아, 지금은 관광객들에게 탄성을 자아내지만 농민들을 강제 노동시키고, 약탈하던 이 공간은 아마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뼈아픈 공간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해방 이후 이곳은 유휴 공간으로 남겨져 있었다. 2009년 문화재단이 본관에 입주했지만 여전히 부속 건물은 창고로만 쓰이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일제의 약탈이 행해지고 수십 년이 흘러 이곳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공간이 아닌, 오히려 주민들의 손으로 예술을 일구는 즐거운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맡은 김미현 건축사는 '시간의 켜를 존중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비록 아프지만 문화역사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이 공간의 흔적을 최대한 남기려 노력했다. 새로운 장치도 잊지 않았다. 작은 공간이 가진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넓은 테라스가 생기도록 셔터를 설치해 공간 확장이 가능하게 했다.

개관식 날, 미술관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정말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수탈의 본거지였던 곳이 여러분의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아픔을 아픔으로 남겨두지 않고, 치유의 장소로 개발했습니다. 미술전문가의 공간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더욱 남다릅니다. 작지만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익산에는 많은 문화자원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 우리 구도심이 활기차지길 바라며, 문화콘텐츠가 넘치는 힐링 공간, 진정한 '시민들의 예술 놀이터'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작은미술관이 열리던 날

이곳이 시민들의 예술놀이터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2016년 10월 21일에 열린 개관식은 삼삼오오 모인 시민들로 북적였다.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쓰이던 재단 앞 공터는 잔치를 치르는 넓은 마당이 됐다. 잔치에는 맛있는 음식과 가무가 빠질 수 없는 법. 마당 한편에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준비한 따뜻한 국수와 전이 맛있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지역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본식에 앞서 몇 차례 이어졌다. 어르신들은 흥겨운 노래에 몸을 맡기며 춤을 췄다. "아직 미술관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춤추고 즐겁게 노는 게 다 예술 아닌가?"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다.

익산문화재단은 사실 작은미술관 준비에 앞서 많은 근심에 휩싸였었다. 시립이나 도립 예술의 전당과 같은 대형 미술관에서 유명 전시를 진행할 때에도 관계자나 관심이 있는 시민들만 참여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과연 주민들 참여가 중심이 되는 곳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첫 개관전을 준비하던 때, 그 불안한 마음은 현실로 다가왔다. 미술관의 성격을 제대로 알려야 하는 개관전. 문화재단은 미술관을 중심으로 평화동, 중앙동을 비롯한 인근 동네에 살았던 혹은 사는 사람이나 생계터전으로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동네의 역사를 담는 <그땐 그랬지> 사진전을 기획했다. 기획 자체가 개인의 역사를 통해 본 마을의 역사이다 보니,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리 쉬우리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예상보다 반응은 더 냉랭했다. "내가 왜 내 사진과 이야기를 그쪽에게 줘야하나?", "그걸 주면 나한테 뭘 해주나? 쌀이라도 주나?", "내 이야기가 무슨 전시장에 들어갈 만한 꺼리라고 그러냐."

미술관이라는 낯선 존재가 비집고 들어갈 작은 틈을 찾기도 힘들었다. 아찔했다. 몇 번이나 발걸음을 돌려야 했지만 당연히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무식하게 주민들에게 구애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하나둘 들려주다가 아예 집 안까지 초대해 앨범을 펼쳐 보여주었다.

1920년대의 사진부터 1990년대 사진까지. 처음 개업 당시 걸었던 가게의 간판, 배를 곯던 시절 시장통에서 우연히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지금과는 많이 다른 익산 시내 전경 사진, 결혼사진 등 주민들의 앨범 속에는 개인의 역사와 함께 도시의 역사가 잠자고 있었다. 기획자는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꺼내어 주민들의 이야기를 함께 스토리텔링했다. 단순한 한 장의 사진이지만 그 사진을 중심으로 한 인생 이야기에는 누군가의 사랑이, 열정이, 아픔이 묻어났고, 이는 미술관 벽과 바닥에 전시됐다. 미술관이라는 낯선 공간이 주민들의 소중한 이야기로 가득 차기까지. 그 수고와 가치를 알아주었기 때문일까. 개관 당일 무려 250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 개관을 축하해 주었다.

전시관을 둘러보며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나누는 이가 많았고, "나도 이런 사진이 있는데..." 하며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처럼 성공적인 개관식은 주변에 빠르게 알려졌다. 게다가 관객 대다수가 주민이었다는 것에 다른 지역 예술 단체들까지 크게 놀랐다. <그땐 그랬지> 사진전은 이후에도 약 보름간의 전시 기간 동안 700여 명의 관객이 모이는 기염을 토했고, 이는 주민과 함께하는 예술 공간이라는 솜리골 작은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도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이끈 견인차가 되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솜리골 작은미술관은 곧바로 다음 행보를 이어갔다. 우선 '일상다반사 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동네에 흩어진 더욱 많은 기억들을 모으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미술관에 인접한 창작 레지던시에 입주한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했다. 이들은 작은미술관이 생기기 이전부터 2017년 재개발이 결정된 평화동 일대에

관한 자료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작은미술관은 지역 작가들의 시각을 작품으로 승화하는 것을 돕고 전시하며 작가들과 네트워크를 다졌다. 그리고 작가들은 다음 전시, <숨바꼭질>에 전시할 작품을 주민들과 함께 준비하는 등 크게 역할했다. <숨바꼭질>전은 어린이, 예술가,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65명의 힘으로 완성됐다. 이들은 공간 상실로 시간성과 존재성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평화동이 철거되기 전, 이곳에 남은 유무형의 역사를 담기 위해 힘을 합쳐 재빨리 움직였다.

프로젝트는 세 가지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로 시민과 어린이, 예술가가 동참해 공간성을 중심으로 공동 작품을 완성했다. 이 작품들은 무려 80여 년 만에 개방하는 역사적 공간, 미술관 앞 방공호에 전시됐다. 6·25전쟁의 잔해라고 추정되는 이 방공호는 원래 더욱 깊었으나, 물이 차올라서 땅을 높게 메우고 나서야 사용할 수 있었다. 덕분에 성인들은 허리를 푹 숙여야만 이동할 수 있지만 그래서 더욱 독특하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다가왔다. 회색 벽돌로 칸칸이 나뉜 벽에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이 걸렸고, 바닥에는 철거를 앞둔 평화동에 버려진 물건을 설치했다. 그 가운데는 386 컴퓨터, 흑백 졸업앨범, 군모와 옛날 영화포스터가 놓여 있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시민과 예술가가 공동 제작한 동네 다큐를 만드는 것. 이는 편집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완성됐고, 미술관에는 이제 곧 부서질 추억의 공간이 담긴 그래픽 지도와 철거 직전, 마지막 모습 사진을 전시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 번째 프로젝트, 상점 주인들의 스토리텔링 명함 작품이다. 자신의 업을 살려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지를 짧게 기록했다. 양장점 주인은 양복을, 미용실 주인은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손수 명함에 그려 넣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 작품이 실제 명함으로 제작되었다는 것. 주민들은 명함 하나로 자신의 일생

과 동네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이전에는 자신의 이야기가 특별한 것인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어울리며 <숨바꼭질>전의 참여 작가가 되었다. 전시 오프닝에도 역시 전 세대가 모였다. 평일 저녁에 치러졌음에도 15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축하를 나눴다. 작가로 참여하거나 인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의 지도 아래 그간 열심히 준비한 합창 공연을 선보였다. 맑고 밝은 어린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번졌다. 작은미술관이 마을에 가져다 준 선물이다.

이 작은 공간을 채우는 것이 누군가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의 공간, 주민들에 의한 공간,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 없이는 결코 채울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이미 솜리골 작은미술관의 신념이 되었다. 예술로 하나되어 모두가 어울리는 곳을 꿈꾸는 솜리골 작은미술관은 그 존재만으로 마음껏 축제를 벌일 수 있는 희망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2017년 1월과 2월, 작은미술관은 또 하나의 특별한 전시를 열었다. 이름하여, 정유년 <닭장파티>전. 정유년을 새롭고 희망차게 맞이하기 위해 염원하는 새해 소원 복주머니에 담기, 소원등 제작 프로그램, 닭을 모티브로 한 복장으로 하고 즐기는 퍼레이드 파티 등을 열었다. 서로의 소원을 나누고, 함께 닭 요리를 나눠 먹으며 주민들은 잃었던 공동체의 힘을 새삼 깨달았다. 주민들이 예술을 바탕으로 놀고 화합하는 장, 그리고 직접 작품에 참여하며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가능성 가득한 공간. 솜리골 작은미술관은 반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그들만의 남다른 행보로 큰 성과를 이뤘다. 이 작은 공간에서 비롯된 진심이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닿아, 예술로 가득한 도시를 일구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다시 또 방문하는 주민들을 볼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익산문화재단 담당자 | **고 경 환**

작은미술관을 운영하며 가장 뿌듯한 점은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들르는 모습도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주민들의 이야기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즘은 “미술관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같이 참여하고 놀아요~”라고 소식을 전하면 주민 외 다른 지역의 시민들도 함께하고 싶다며 적극적인 호응을 보냅니다. 주민들이 남긴 말을 몇 개 적어봅니다.

“우리 동네 이런 공간이 생기니 좋지. 내가 미술관을 가볼 일이 있겠어?”
“이 동네 분들만 말고 저희(익산시내권 주민)에게도 참여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 미술관에서 전시를 해보겠어. 그것도 작가라고. 너무 뿌듯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계속 연락 주세요. 꼭 하고 싶어요.”
“나도 해도 돼? 그럼 난 뭐든 시켜줘. 나 꼭 하고 싶어.”
“한 번 해본다고 되간? 여러 번 해봐야 늘지. 몇 번 해봐서 이젠 알아서 할 줄 알아.”
“첨에 어려웠는데, 이젠 오는 것도 편하고 해보는 것도 재밌고 좋아.”
“이런 걸 해보니 동심으로 돌아 간 것 같고 너무 재밌어요.”





이전에는 익산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구시가지라 불리는
중앙동 일대는 예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잠자는 동네를 깨우고,
시끌벅적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솜리골 작은미술관 개관전시 <그땐 그랬지>전은 평화동 일대 주민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번영기 등 추억 속 모습을 담았다.




송백회回展















2016년 10월 21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준비한
따뜻한 국수와 전이 맛있는 냄새를 풍겼고,
지역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무려 250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 개관을 축하해 주었다.







<숨바꼭질>전은 전 세대가 어울리며 어린이, 예술가,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 65명의 힘으로 완성되었다. 작가로 참여하거나 인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의 지도 아래 열심히 준비한 합창 공연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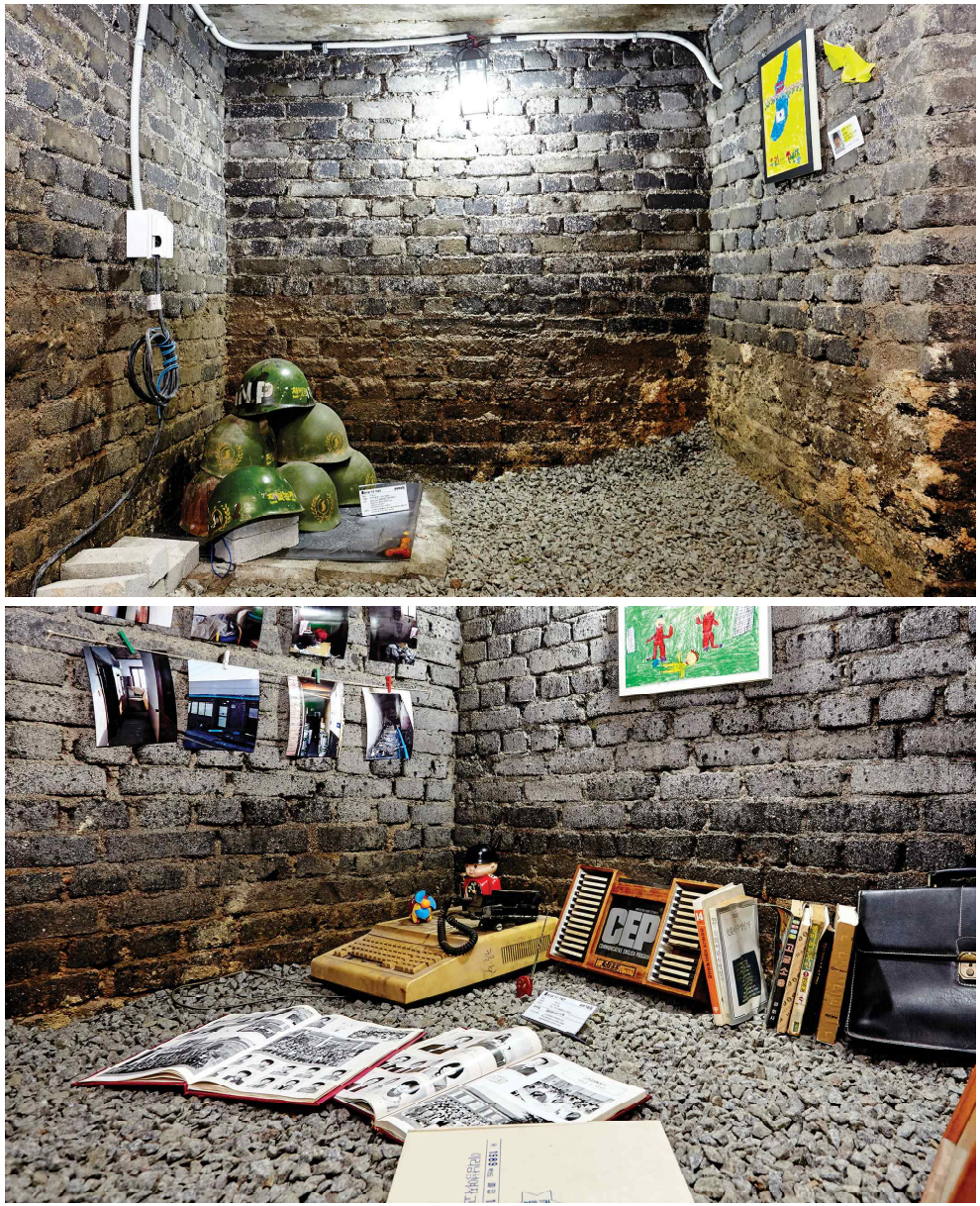








시민과 어린이, 예술가가 동참해 공간성을 중심으로 공동 작품을 완성하여 80여 년 만에 개방하는 역사적 공간, 미술관 앞 방공호에 전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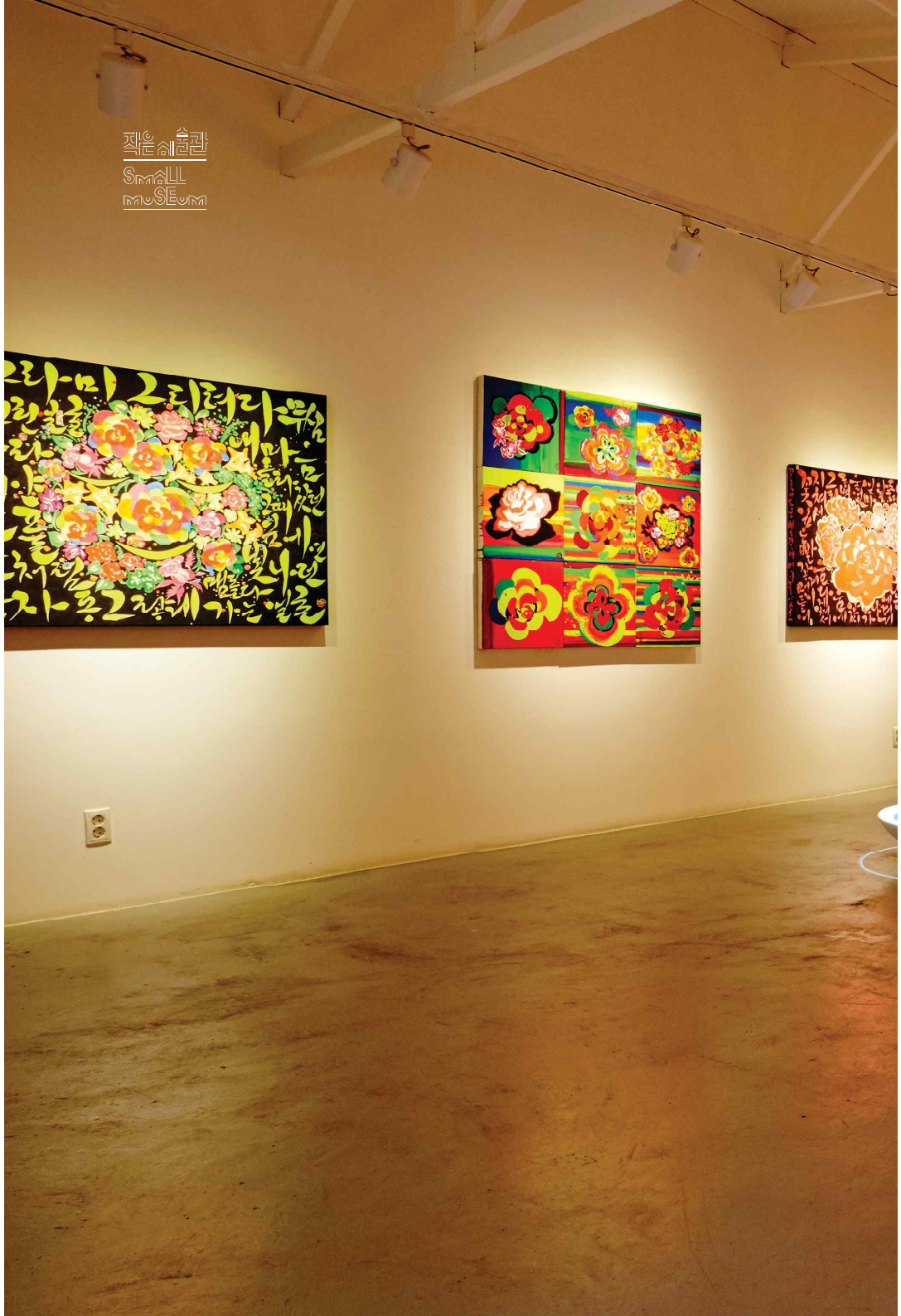

MP
CEP







<그땐 그랬지> 사진전에는 1920년대의 사진부터 1990년대 사진까지 개업 당시 걸었던 가게의 간판사진, 시장통 사진, 결혼 사진, 익산 시내 전경 등 주민들의 이야기를 함께 스토리텔링했다. <숨바꼭질>전은 주민들이 아티스트와 협업해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우리
미술관

전시관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화도진로192번길 3-7, 9, 11 | 교육관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화도진로186번길 10

ifac.or.kr(인천문화재단) | wooriart.co.kr | facebook.com/WooriMuseum



예술로 마을과 마음을 환하게 비추다

인천 동구에 자리한 우리미술관은 2015년에 이어, '2016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 (이하 2016 작은미술관 사업)'에 선정되었다. 낙후한 만석동 일대에 점차 예술과 문화를 뿌리내리게 할 수 있었던 지난 1년의 이야기와 새로운 변화들을 함께 만난다.

판잣집, 낙후한 시설, 공장 지대, 도심 빈민가로 대표되는 만석동. 부둣가에 인접한 이곳은 개항 이후 근대화를 거쳐 해방 이후 산업화의 기억과 철강 산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의 고된 삶이 서린 마을이다. 현재는 도시 슬럼화의 빠른 진행으로 인천시 10개 군구 중 공폐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곳은 6.25전쟁 발발 후 황해도 출신 피난민들, 남쪽에서 올라온 이주농민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전쟁 후에는 사방을 거적이나 가마니로 둘러막고 함석, 상자, 짚 등으로 지붕을 얹은 반지하식 움막이 모인 토막촌이었다. 점차 주민들이 손수 굴 껍데기로 터를 다지고 시멘트와 나무를 이용해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집이 들어서고, 증축되며 새로 지어졌다. 옆집의 바람벽을 이용해 세웠기 때문에 집이 하나로 이어지는 형태가 되면서 오늘날의 모습이 됐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 속에서 힘들게 노동하며 터를 가꿨건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유로 주민들은 결국 판잣집 쪽방촌에서 가난하게 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불안한 주거환경과 문화시설 부재로 점점 빛을 잃어가는 만석동은 봄날 갓 피어난 노란 민들레처럼 마을에 희망이 되어줄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했다. 2015년 문화예술위원회가 처음 주관한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은 그때 한줄기 빛이 되어 주었다. 인천시 동구청과 인천문화재단은 시가 소유한 만석동의 작은 공가를 작은미술관으로 바꾸기로 결정했고, 어두웠던 마을을 조금씩 꽃피우기 시작했다.

사랑방 혹은 치유의 공간

우리미술관은 완연한 겨울로 들어선 2015년 11월의 어느 날 처음 문을 열었다. 한때 철강공장이었던 스무 평 조금 넘는 이 작은 공간은 작품을 담기 좋은 아담하고 깔끔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개관한 지 1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미술관은 벌써 여덟 번의 전시를 거치며 매번 다양한 작품들로 화려하게 변신해왔다. 개관 날, "대체 이게 무어야?" 혹은 "과연 내가 이곳에 올 일이 있을까?" 하며 갸우뚱거렸던 주민들도 그 사이 많이 변했다. 좀처럼 들를 일 없을 줄 알았던 곳이었지만, 몇 걸음만 나서면 미술관이 있었고, 호기심에 들어가 본 미술관 문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도 깨닫기 시작했다. 그렇게 미술관은 만석동 주민들에게 사랑방 드나들 듯 오가며 좋은 작품을 한없이 바라볼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 되었다.

인천광역시는 안타깝게도 전국 7대 특별시, 광역시 중 시립미술관이 없는 유일한 곳이다. 먹고사는 데 바빠 가까운 곳 나들이 갈 생각조차 할 여유가 없는 이들이 시에도 없는 미술관을 찾는다는 것은 일상 속에서 상상하기 힘든 행위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만석동에는 과거 철강과 부두 관련 산업 근로자로서의 경험을 가진 65세 이상 연령 비율이 높아 예술이 애초에 생소한 이들이 많다. 때문에 우리미술관은 탄생부터 '공동체적 삶을 토대로 인천의 지역성과 예술성을 가진 모두에게 열려 있는 사랑방으로서 역할할 것'을 지향점으로 삼았다. 예술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바로 곁에서 누구든 예술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역할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삶속에 자연스레 녹아들 수 있는 친숙한 문화 공간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미술관인 만큼 작품에서부터 정서적 괴리를 좁혀 나갔다. 다양한 예술가, 전문가와 소통하며 지역성을 토대로 한 작품을 기획해 주민들이 예술과 조금씩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계기를 꾸준히 마련했다.

지역을 재해석한 전시로 예술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다

우리미술관의 개관을 알린 첫 번째 전시, <집과 집 사이-철, 물, 흙>은 미술관이 나아갈 방향을 알린 전시였다. 나지막한 언덕에 빼곡하게 붙어 있는 판잣집과 좁은 골목길에서 옹기종기 모여 생활을 공유하며 살아온 주민들. 전시에 참여하게 된 5인의 아티스트 강혁, 구본아, 김순임, 도지성, 이상하 작가는 만석동의 이러한 생활상에 먼저 주목했다. 이들은 동네를 직접 경험하며 동네의 감성과 역사, 기억을 수집했다. 그리고 만석동이 소통과 충돌의 공간으로 오랜 시간 자리할 수 있었던 '집과 집 사이'를 그 이유와 상징으로 꼽았다. 이는 곧 전시의 주제가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좁은 방, 좁은 골목에 켜켜이 쌓여온 이야기와 점차 변해가는 만석동의 모습을 각자의 방식으로 작품에 담았다. 철, 물, 흙은 만석동을 대변하는 것으로 각각 철강 단지, 부둣가, 이 땅에서 땀 흘린 노동자를 상징한다. 이 전시를 통해 주민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예술로 승화되는지를 직접 목격했다.

작가들이 작품을 준비할 때, 한편에서는 <기억의 동네>라는 주제로 주민참여 전시 준비가 한창이었다. 미술관 조성 과정에서 진행한 작가 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동네 어르신과 아이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었다. 8주 동안 지역 도예가와 어르신들이 함께 내가 살아온 동네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추억을 나누며 직접 우리미술관의 도자 간판을 직접 제작했다. 동네 아이들 스물아홉 명은 도지성 작가와 함께 흙물을 풀어 '내가 사는 동네', '나의 가족' 등을 주제로 60점의 그림을 완성했다. 도자 작품은 개관 후 대문에 걸려 우리미술관을 찾는 이들을 반기고 있고, 아이들의 그림은 우리미술관 교육관에 전시됐다. 이는 주민 스스로 예술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예술가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 일깨운 중요한 전시였다.

이후 우리미술관은 <바다사진관>전, <Remember 2004, 화수부두>전 등 만석동 일대의 부둣가를 배경으로 작업한 사진전을 개최하며 주민들에게 지역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만석동 주민들, 주인공이 되다

마을에 미술관이 생긴 후 몇 달을 보내면서 주민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작품을 통해 서서히 예술과 가까워졌다. 내가 사는 곳에 어떤 이야기가 서렸는지를 문화적, 역사적, 예술적으로 색다르게 접해보기도 하고, 서로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다. '문화'는 삭막한 마을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매개가 되었다.

그리고 2016년 9월 23일, 우리미술관에서는 <사람꽃>전이 열렸다.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해온 두 명 작가의 작품, 김창겸 작가의 미디어 아트와 홍지윤 작가의 회화 작품이 어우러진 전시로, 소소한 인간사를 꽃에 비유해 표현했다.

평범한 일상의 아름다움과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한 이 전시의 주인공은 바로 만석동 주민들. 전시를 기획한 김창겸 작가는 세상에 많은 작품과 전시가 있지만, 관객이 작품과 소통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둥절하고 낯선 경험을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그는 이번 마을 단위의 작은 전시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고자 했다.

"외부가 아닌 내부로 열린 전시를 기획해 마을주민들이 작품에 참여하고, 꽃과 사람들의 모습이 함께 작품이 되는 미디어 작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마을주민이 작품이 되고, 마을주민이 관객이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꽃이 있고, 작품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작품을 통해 회화작가와 비디오작가, 마을주민 간의 완벽한 소통을 이루고 싶습니다."

김창겸 작가는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홍지윤 작가와 함께 <사람꽃>전을 완성했다.

삶과 꽃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람꽃>전

전시 오프닝 날, 주민들은 마을잔치라도 열린 것처럼 분주하게 움직였다. 일을 하다 잠시 들러 작품을 잠시 들여다보기도 했고, 작은 앞마당에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마당을 둘러싼 울타리에는 작은 액자들이 수십 개 걸려 있었는데, 이는 저녁에 상영할 김창겸 작가의 미디어 작품 속 주민의 모습을 출력해 만든 선물이었다. 작품에 등장한 주민들은 액자를 받을 때마다 환하게 웃음 지었다.

저녁 6시, 전시 오프닝이 시작됐다. 주민은 물론, 동구청과 인천문화재단 직원, 문화경영을 공부하는 인하대 학생들까지 약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좁은 미술관 안팎에 자리 잡았다. 이날 인천문화재단 이사장은 전시 오픈 축하에 덧붙여 "우리미술관이 작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으로서 크게 기여하길 꿈꿉니다. 주민들을 위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며, 그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시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라고 말했다. 김창겸 작가는 "동네를 처음 방문했을 때 어릴 때 기억이 날 만큼 친근했습니다. 예술은 함께 행복을 도모할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라 생각합니다. 동네가 예술로 더욱 환하게 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홍지윤 작가는 "사람이 살아가고 존재하면서 연상할 수 있는 삶과 꽃과의 연결을 생각했습니다. 기쁜 미술을 같이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인사말을 남겼다.

관람객들은 먼저 홍지윤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작가는 선명하고 다채로운 색을 사용하는 특유의 화법과 감성을 발휘해 그린 아름다운 회화 작품으로 전시관 내부를 채웠다. 찬란하게 피어난 꽃 그림 안에는 캘리그라

피로 다양한 글귀가 쓰여 있었다.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와 같은 유행가의 가사와 다양한 글귀를 통해 작가는 인간의 소소한 감정과 삶의 모습을 작품에 드러냈다. 그리고 그 텍스트를 때로 활짝 피어나고 또 지기도 하는 꽃 속에 자연스레 배치함으로써 삶은 꽃이고, 사람은 꽃이라는 것을 재치 있게 드러낸다.

작품은 퍼포먼스로도 이어졌다. 마당을 가득 메운 흰 도화지 위에 홍지윤 작가가 맨발로 서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큰 붓과 장미꽃에 먹과 물감을 묻혀 그림을 그렸다. 와인을 뿌리기도 했다. 이 자유분방한 모습을 관객들은 흥겹게, 때로는 숨죽여 지켜봤다. 어느 할머니 한 분은 퍼포먼스를 본 뒤 "매번 미술관 작품이 바뀔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들르는데, 오늘은 특히 자유롭고 즐겁네요. 마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아요"라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주민들을 주인공으로 한 김창겸 작가의 미디어 파사드 작품은 미술관 근처 아담한 2층 건물, 곳방 앞 작은 골목에서 상영됐다. 퍼포먼스가 끝난 뒤 어둑해진 저녁 무렵이었다. 꽃이 움직이고 피는 배경화면 속에 마을주민들의 얼굴이 나타나고, 주민들의 얼굴이 바뀌기도 했다. 선명한 꽃 사이로 얼굴이 하나씩 바뀔 때마다 주민들은 작품 속 자신의 모습이 쑥스러운 듯 멋쩍게, 혹은 기쁘게 웃음 지었다.

새로운 시도와 변화들

삭막했던 만석동 한편에 작은미술관을 만들고 운영한 지 이제 일 년하고 몇 개월이 지났다. 이름처럼 정말 '작은'미술관이지만 평생 예술과는 만날 일 없을 줄 알았던 어느 어르신의 일상에 예술로 웃음을 꽃피우는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주민들은 관객은 물론, 작품 속 주인공으로 역할하는 등 그들의 일상은 예술과 누구보다 가까워졌다.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

을 통해서는 예술가가 되기도 했다.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진행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무대에서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뮤지션이 될 수 있었고, 성인반 목공 프로그램에서는 마을을 위한 예쁜 벤치와 책장을 만드는 목공예가로 거듭났다. 어린이들은 문화교육 프로그램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문화로 즐겁게 노는 방법을 다양하게 익히며 진짜 예술가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했다. 이처럼 꾸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미술관은 마을과 주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동시에 점차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다.

2016년, 우리미술관은 만석동 일대에 문화와 예술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더 다양한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먼저 기존에 있던 전시관과 교육관 이외에도 두 공간을 더 추가했는데, 전시관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비어 있던 공간을 활용했다. 한 곳은 '곳방'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2층짜리 작은 건물이다. 이곳은 주거 공간 활용 보수공사를 통해 우리미술관 아티스트 레지던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공동창고로 쓰였던 공간은 좁은 입구를 개방형으로 교체해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만나 작업할 수 있는 스튜디오로 다시 태어났다.

첫 번째 입주 작가는 커뮤니티 아트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해온 김재민이 작가다. 그는 입주 후부터 주민과 융화해 창작 활동을 시작했고, 동네에서 머물며 주민과 나눈 이야기와 그가 느낀 감성을 토대로 미디어 작업을 했다. <시스터액트 코리아>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지난 2016년 12월 16일 스튜디오에서 쇼윈도 방식의 전시로 열렸다. 레지던시와 스튜디오를 통한 작가 영입은 마을이 가진 특유의 이야기와 역사를 다양하게 발굴할 수 있고, 이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작가에게는 마을 자체가 하나의 색다른 영감으로 작동한다. 우리미술관은 마을주민과 작가가 서로 시너지를 만들며 마을이 예술로 풍성한 곳,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거

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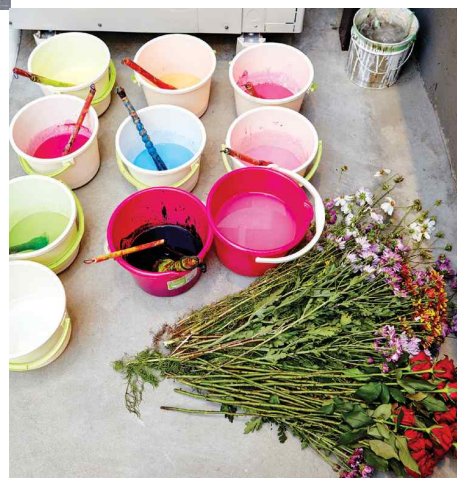
작은 틈새로 핀 노란 민들레꽃이 추운 겨울을 지나 화사한 봄이 왔음을 알리는 새 희망이듯이 우리미술관의 지향과 새로운 시도가 계속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밝게 비출 민들레꽃이 되어주길 바란다.

각자의 방식으로 예술을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던 소중한 시간

우리미술관 담당자 | 구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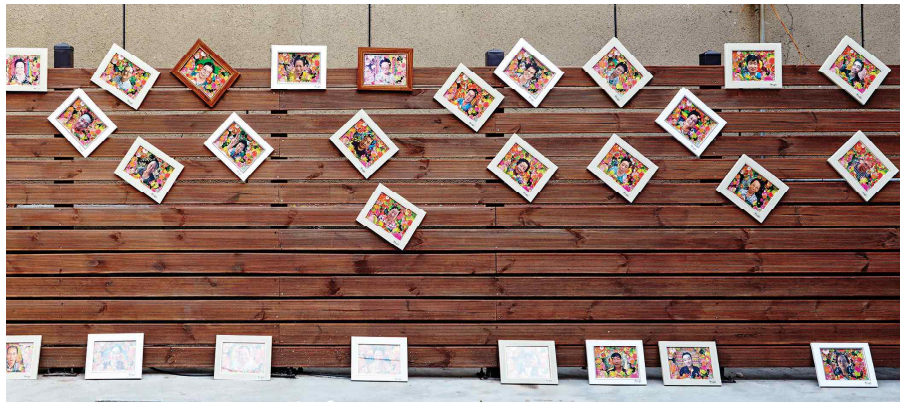
〈사람꽃〉 전시를 위해 어르신들 사진을 촬영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본인 사진이 미술관에 걸리는 게 부담스럽다던 분, 나이든 자신의 모습이 늙고 추하다며 싫다던 분, 꾸미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창피해하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처음엔 다들 소극적이었지만 다른 동네가 아닌 우리 동네 미술관에, 친한 이웃 주민들과 함께 사진이 걸린다는 말에 조금씩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긴장한 표정을 보여주던 분들이 점점 환하게 웃으며 즐겁게 촬영에 응해 주었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사람꽃〉 작품을 야외에 설치한 뒤 한 주민은 전시 기간 내내 같은 시간에 나와 본인이 나오는 영상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친구와 함께 보는 분들도 있었고요. 〈사람꽃〉에 등장하는 모습을 액자에 넣어 선물로 나누어 드릴 때 인근 식당 아주머니는 사진을 수줍게 받아가셨는데, 얼마 뒤 식당에 가보니 액자를 잘 보이는 벽면에 걸어두셨더라고요. 물론 주민들이 소소한 인간사를 꽃에 비유했다는 작품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품을 위한 사진을 찍고 감상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예술을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었음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9월 23일, 우리미술관에서는 <사람꽃>전이 열렸다. 주민들은 마을잔치라도 열린 것처럼 분주하게 움직였고 마당을 둘러싼 울타리에는 김창겸 작가의 미디어 작품 속 주민들의 모습을 담은 액자들이 수십 개 걸려 있었다.


ADT
016.09.23 _ 12.23




3-4



<사람꽃>전에 참여한 홍지윤 작가는 사람이 살아가고 존재하면서 연상할 수 있는 삶과 꽃과의 연결을 표현하였다.






Black



작품은 퍼포먼스로도 이어졌다. 마당을 가득 메운 흰 도화지 위에 홍지윤 작가가 맨발로 서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큰 붓과 장미꽃에 먹과 물감을 묻혀 그림을 그렸다.









마을주민들이 작품에 참여하고, 꽃과 사람들의 모습이 함께 작품이 되는
김창겸 작가의 미디어 파사드 작품은 미술관 근처 아담한 2층 건물, 곳방 앞 작은
골목에서 상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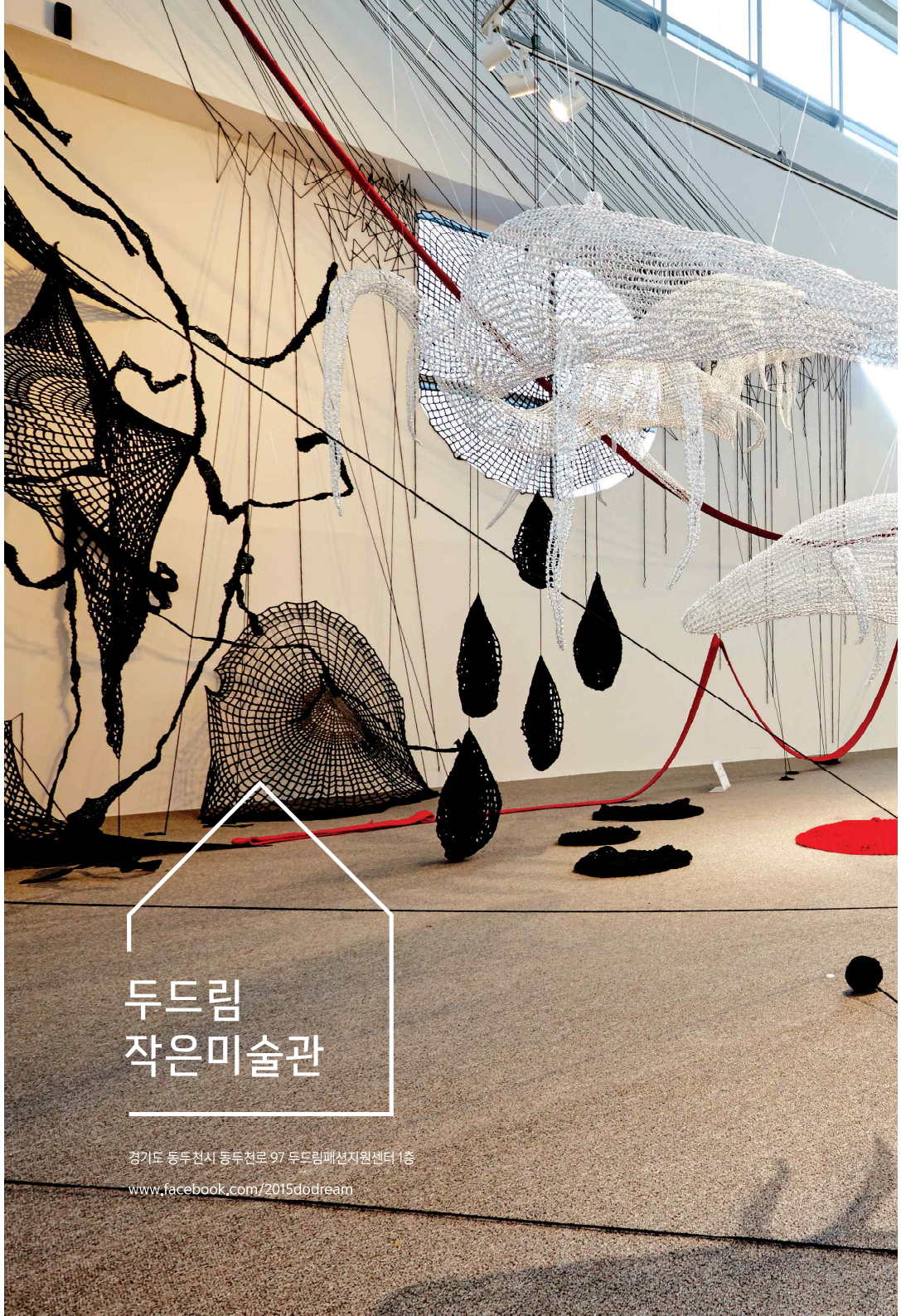




찬란하게 피어난 꽃 그림 안에 캘리그라피로 삶은 꽃이고, 사람은 꽃이라는 것을 재치 있게 표현한 홍지윤 작가의 작품은 선명하고 다채로운 색을 사용한 특유의 화법과 감성으로 전시관 내부를 아름답게 채웠다.







두드림
작은미술관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97 두드림패션지원센터 1층

www.facebook.com/2015dodream


작은 쉼 미술관
SMALL
MUSEUM



씨실과 날실을 엮어 희망을 직조하다

두드림 작은미술관은 동두천시 지행역 근처에 있는 두드림패션지원센터 1층에 있다. 2015년 11월에 개관한 이래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미술 프로젝트, 패션과 미술을 접목한 전시 등을 이어나가며, 동두천의 문화허브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희망이란 단어의 희(希)자는 사귈 효(爻)와 옷감 건(巾)이 합쳐진 글자다. 사귈 효자는 날실과 씨실이 엮인 모습이기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씨실과 날실을 엮어 옷감을 만들어내듯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야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낱개의 실은 힘없는 터럭에 불과하지만, 여러 실을 잘 엮으면 직물이 되고 옷이 된다. 한 사람은 힘이 없어도 여럿이 모여 힘을 합치면, 단순히 여럿 이상의 무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2016년 겨울과 2017년 봄을 잇는 사이에, 이 희망이라는 단어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한 전시 '직조 3부작 시리즈'가 동두천시 두드림 작은미술관에서 차례로 열렸다. 두드림 작은미술관이 자리한 곳은 실을 엮어 직물과 옷을 만드는 두드림패션지원센터의 1층 로비다. 이곳 패션센터는 50여 개의 봉제공장이 있는, 그야말로 실들의 교차로다. 이 실들이 동두천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져온 밥줄이고, 동두천의 살아있는 역사이며, 주민들을 서로 엮고, 이웃 지역을 엮는 줄, 새 희망을 가져오는 동아줄이다. 미술관은 그 엮임을 주재하는 허브 역할을 자처하며, 그 일환으로서 위의 전시를 기획했다.

동두천과 실, 동두천과 패션이라니 생소한 조합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동두천시는 오랫동안 주한미군이 주둔하며 '기지촌'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기 때문이다. 미군은 점차 떠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군부대와 미군공여지가 절반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절반의 땅, 그리고 반백년의 역사를 주한미군에 내주었지만, 편견과 소외로 인한 설움이 켜켜이 쌓인 곳이기도 하다. 절반을 내어주고 남은 작은 땅에 소규모 시설과 자본으로 유지 가능한 봉제산업이 발

달한 것은 필연이었다. 큰 산업에 비해 주목 받지 못했지만 동두천의 봉제산업은 기지촌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왔다. 동두천은 지난 60여 년간 '기지촌'이었고, 봉제산업이 발달한 곳이었고, 미술관이 단 하나도 없던 곳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동두천은 어떤 곳일까, 어떤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질문에 대답하자면, 2015년 말 두드림 작은미술관이 개관한 이래로, 미술관이 있는 곳이 되었다. 시 최초의 시각예술 공간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이 작은미술관은 봉제산업에서 동두천의 새로운 미래를 전망했다. 동두천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봉제산업은 패션산업으로서 새롭게 주목받으며, 과거와 미래, 사람과 기계, 예술과 산업을 잇는 교차로가 될 것이다. 두드림 작은미술관이 그 시작을 여는 작지만 힘 있는 움직임이 되고자 한다.

봉제공장 아래 미술관

두드림 작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5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의 지원으로 생겨났다. 이 사업으로 전국 6개 지역에 작은미술관이 조성됐다. 마을 창고, 옛 보건소, 버려진 세탁소, 주민센터 분소 등 역사적으로 의미 있거나 지역주민들에게 친근하지만 지금은 비어 있는 공간을 찾아내 미술관으로 만들었다. 그중에 이곳 두드림 작은미술관은 동두천시 신시가지인 지행역 근처 두드림패션지원센터의 1층 로비를 활용해 만든 곳이다.

센터는 동두천시의 자산인 봉제산업을 부흥시키고자 2013년에 문을 열었으나, 1층 로비는 쓰지 않는 기자재를 쌓아둔 공간으로 버려져 있었다. 센터는 50여 개의 봉제공장, 식당, 편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고, 주변에는 초, 중, 고등학교와 아파트 단지, 주민센터 등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주변 시설과 연계가 용이하며 지역의 역사성까지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동두천시에 처음으로 개관하는 미술관이기에 시민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과제였다. 나아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동두천시를 방문한 누구라도 꼭 들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크게 세 영역의 사업을 전개했다. 봉제, 인체, 패션 등과 연관된 미술전시, 즉 패션센터의 입주 상인들 주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소재의 미술전시, 이러한 전시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 주변의 학교나 주민센터 등으로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친숙한 소재로 지역에 다가서다

2015년에 <미술, 패션을 두드리다>전, <몸, 옷, 마네킹>전, <Newly Clothed>전 등을 열었다. 개관전이었던 <미술, 패션을 두드리다>전은 김지민, 오유경, 이준, 차승언이 참여했다. 네 명의 작가들은 '엮다, 꿰매다, 잇다, 감다, 풀다, 반복하다' 등의 언어를 실, 상표, 천 등 봉제공장 상인들에게 친숙한 소재들을 이용해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했다. 두 번째 전시인 <몸, 옷, 마네킹>은 3D 디지털 이미지가 만들어낸 실물 같은 사진과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이루어졌다. 해체되고 재조합된 인체에 화려한 문신과 문양, 색채를 입혀가며 인간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는 김준 작가의 작업을 만날 수 있었다. 세 번째 전시는 봉제공장 로비라는 장소의 특수성에 더욱 충실한 <Newly Clothed>을 선보였다. 강선미 작가는 벽을 캔버스 삼아 대형 드로잉을 선보여 관람객들을 사로잡았고, 김민형 작가는 일상적인 소재인 하이힐에 말굽이라는 생소한 조합을 끌어들여 초현실적이고 독특한 작품을 내놓았다.
각 전시와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직물을 짜 캔버스 천을 제작하는 <두드림 작은공방>, 자투리 천과 단추를 이용해 쿠션을 만드는 <빨간 가위 패션교실>, 지역민 간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는 <두드림 마켓> 등이 열렸다. 멀티 아티스트 김태중의 지도 하에 동두천 행복

꿈터아동센터, 동두천 애신복지아동센터, 동두천 드림지역아동센터, 파주 적암초등학교, 의정부 청소년여성쉼터 등 경기북부의 기관들을 직접 찾아가 공동 펜드로잉과 가면백 만들기, 옷 만들기 등 아트 프로젝트를 실행했고, 그 결과물로 전시를 열기도 했다.

한 발짝 더, 동두천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미술관

2016년에도 교육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젝트는 이어졌다. <우리동네 만나기>, <우리동네 다시 만나기>, <동두천 런웨이>, <Swallow slowly>라는 이름으로 전시도 열었다. 작은미술관의 부지런한 움직임 덕에 동두천시에 처음으로 생긴 미술관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지만, 한 단계 도약이 필요했다. 두드림 작은미술관은 '미술관'의 보수적인 틀을 넘어, 지역의 문화허브로 발돋움하고자 '직조 3부작 시리즈' 전시를 기획했다.

'직조 3부작 시리즈'는 동두천이라는 지역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했다. 2016년이 저물고 2017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지역의 역사를 반추하고 앞날을 그려내고자 했다. 미술관이 자리 잡은 이곳, 봉제 공장에 다시금 주목했고,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희망이란 단어의 희(希)자는 실들이 엮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럿이 함께 얽힌 모습이기도 하다. 평범한 당신들이 공동체의 일원이며 희망의 주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러한 기획 의도가 가닿았는지 '직조 3부작 시리즈'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패션센터 입주 상인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쉬는 시간마다 미술관에 내려와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니 새롭다", "자수가 정말 정교하다. 나도 다시 한 번 해볼래" 등 삼삼오오 수다를 떨곤 했다. 그 순수한 관심들이 작은미술관에 큰 활력이 되었다.

작은 실로 희망을 이야기하다

'직조 3부작 시리즈'는 말 그대로 3부작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직조의 시작_상상력의 교차로>, 두 번째 <손으로 직조하는 세계>, 세 번째 <손에서 직조 산업으로> 등 세 개의 전시가 차례로 열렸다.

1부 <직조의 시작_상상력의 교차로>는 하나의 실이 옷이 되고 문화가 되고 변화가 생겨나는 '직조'의 의미에 주목했다. 보라리 작가는 공간을 뜨개질로 드로잉했다. 낱개의 실은 연약하지만 여럿을 엮어서 공간 자체를 점유하고 관객을 다른 세계로 이끌었다. 이선희 작가는 헌 옷들의 실을 풀어서 따뜻한 색감의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다. 이원경 작가는 알루미늄이라는 차갑고 딱딱한 소재를 실처럼 엮어 따뜻하고 유연한 생물체를 표현했다. 모두 실이라는 소재로부터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큰 주제를 관통하고 있었다.

2부 <손으로 직조하는 세계>는 궁중자수 장인 최정인의 자수로 시작해, 강승희의 비판적 메시지를 담은 자수, 조나라의 감정을 쓸어내리는 자수를 선보였다. 3부 <손에서 직조 산업으로>는 3부작을 총 망라하는 전시로, 동두천의 역사와 한국 봉제 산업의 역사를 함께 엮어 이야기했다. 특히 이 전시에는 두드림패션지원센터에 입주한 청바지 브랜드 '아카브'가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조금씩 피어나는 문화의 싹

두드림 작은미술관이 개관하고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을 찾아 주었지만, 한계에도 부딪혔다. 동두천시에 처음 생긴 미술관이기도 하거니와 미술 외의 지역 문화 프로그램 자체가 적다 보니 많은 주민들이 낯설어 했다. 특히 미술관 공사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패션센터 입주 상인들의 마음을 열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그렇기에 3부 <손에서 직조 산업으로>전에 패션센터 입주 브랜드인 아카브가 참여한 것은 고무적이었다. 적극적으로 전시에 참여해 준 아카브의 젊은 사장님, 가까운 곳에 미술관이 생겨서 좋다며 방문한 동네

가족들, 학생들을 데리고 매일 방문한 선생님, 멀리서 소식을 듣고 와주었던 분들 등 여러 사람들 덕분에 작은미술관에 희망이 피어나고 있다.

씨앗을 심고 한순간에 나무가 자라길 바랄 수 없는 것처럼, 문화도 한순간에 자랄 수는 없다. 하지만 꾸준한 관심과 노력, 시간을 들인다면 문화는 그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그늘과 열매를 내어줄 것이다. 이곳 동두천시에는 문화가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있다.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두드림 작은미술관이 문화허브로서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작은미술관이 만들어낸 반향으로 문화 예술로부터 소외된 여타 지역에도 문화의 씨앗이 전파되길, 작지만 소중한 문화적 시도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이제 막 튼 문화의 싹을 키워 희망을 꽃 피우고 싶습니다”

두드림 작은미술관 전시기획자 | 이 생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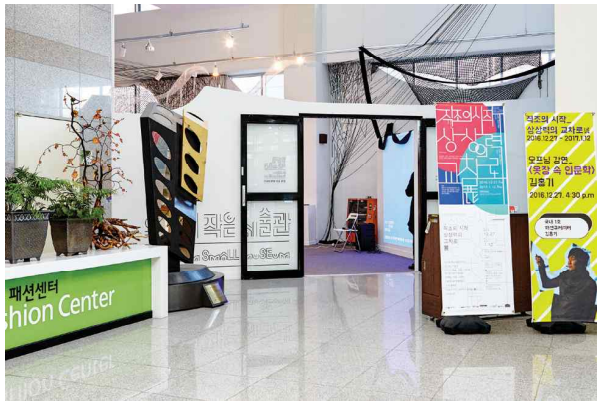
두드림 작은미술관은 아직 시설물 관리가 어렵고, 전시를 설치할 때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전시에 필요한 자재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럴 때마다 이곳에 입주해 있는 분들, 전시 작가님들 등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멋진 전시를 열 수 있었어요. 그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힘내서 이곳 미술관에 동두천시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을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이제 막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작은미술관은 물리적 한계를 넘어, 유연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지역에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드림 작은미술관이 지역 사람들에게,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겨울과 2017년 봄을 잇는 사이에, 희망이라는 단어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한 전시 '직조 3부작 시리즈'가 동두천시 두드림 작은미술관에서 열렸다.


패션센터
hion Center







2016년에도 교육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젝트는 이어졌다.
'미술관'의 보수적인 틀을 넘어, 지역의 문화허브로 발돋움하고자 '직조 3부작 시리즈' 전시를 기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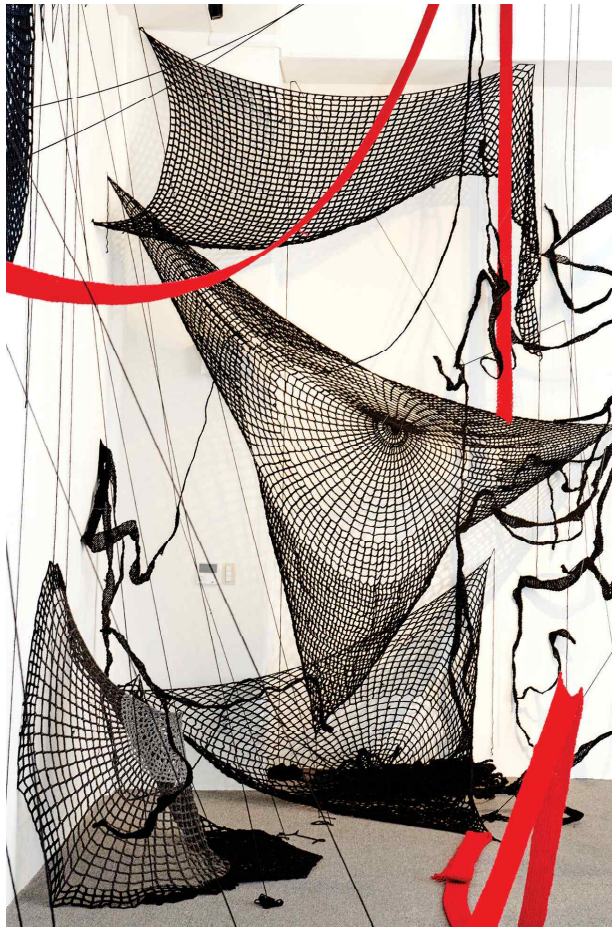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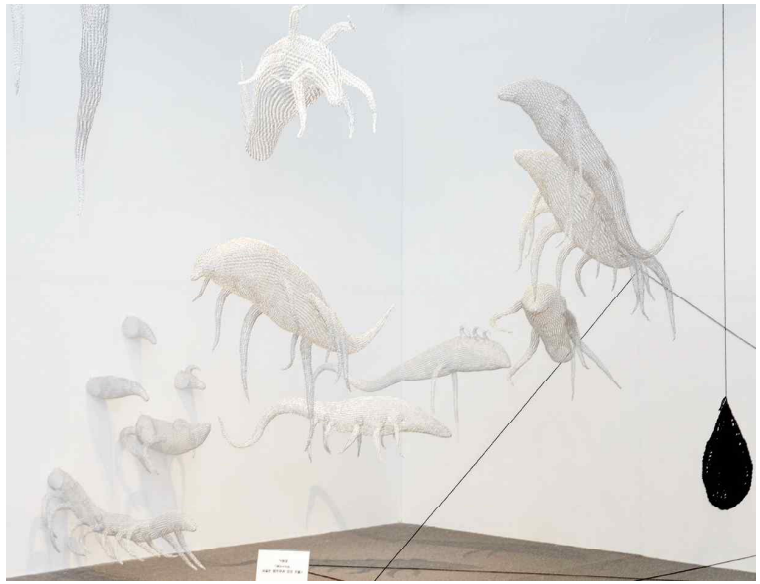


'직조 3부작 시리즈', 1부 <직조의 시작_상상력의 교차로>,
2부 <손으로 직조하는 세계>, 3부 <손에서 직조 산업으로> 등
세 개의 전시가 차례로 열렸다.


두드림 작은미술관 대외협력 3부작 기획전시
직조의 시작_상상력의 교차로
2016. 12. 27 -2017. 1. 12
보라리, 이선희, 이원경
동두천시의 역사를 함축하는 봉제산업을 전시 3부작으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이번 첫 전시에는 이번의 전시에는 씨줄과 날줄을 사용하는 세분의 작가가 등장한다. 보라리는 뜨개질을 이용하여, 공간을 드로잉한다. 이선희는 타인의 옷을 수거하여 풀어내고, 새로운 형태의 직물을 조직한다. 이원경 작가는 철 와이어를 교차의 방식으로 건혀 새로운 생물체가 비상하도록 한다. 직조는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이며, 이 만남이 두드림 작은미술관과 두드림패션센터를 새로 직조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간을 뜨개질로 드로잉하거나, 알루미늄이라는 차갑고 딱딱한 소재를 실처럼 엮어 따뜻하고 유연한 생물체를 표현한 작품들. 실이라는 소재로부터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이야기했다.





남해바래길 작은미술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1739번길 46-1



마음을 치유하는 바닷가 옆 미술관

'2015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이하 2015 작은미술관 사업)'에 선정되었던 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은 예술문화 향유 공간으로 거듭나 남해의 문화지도를 다시 쓰고 있다. 2016년에도 재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지역과 공간에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문화거점지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들의 지난 이야기들을 만나보자.

경상남도 끝자락으로 향하면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이 벌어졌던 남해대교가 나온다. 바다 건너 남해도와 연결된 노량바다는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무수한 유배객들이 나룻배를 탔던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유배지였던 남해는 그 아름다운 절경 때문에 유배를 왔던 많은 선비들이 많은 시문을 비롯해 <구운몽>, <화전별곡>, <사씨남정기>, <남해견문록> 같은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겼다.

남해대교를 건너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일부인 남해도가 등장한다. 70여 개의 크고 작은 섬과 산으로 이뤄진 이 섬은 빼어난 절경을 갖추고 있어 계절을 망라하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 남해의 아름다운 해안을 따라 남서쪽 끝으로 이동하면 아담한 항구와 횟집들이 반기는 마을 평산리를 만나게 된다. 소박한 어촌의 정취와 눈부신 몽돌해변의 파도를 벗 삼아 산책할 수 있는 '바래길' 중 인기가 가장 높은 '다랭이지겟길'이 시작되는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다. '바래'는 남해 사람들의 토속어로 '바다가 열리는 물때에 맞춰 갯벌에 나가 파래나 미역, 고동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작업'을 뜻한다. 그리고 옛날 남해 어머니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오가던 그 길을 '바래길'이라 부른다. 남해군은 바래길을 모티브로 걷기 좋은 길을 만들었고, 현재 열 개의 코스가 완성됐다. 1코스인 다랭이지겟길은 척박한 생활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산비탈을 깎아 만든 다랑이 논과 바다로 오가던 길로, 평산항에서 사촌해수욕장을 거쳐 가천 다랭이마을까지 이어진다. 다섯 시간 정도 걸리는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

선조들의 억척스러운 삶의 면모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이곳은 일몰과 일출의 포인트로 사진작가들이 촬영을 오거나 화가들이 모여 바다의 풍경을 스케치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고요한 남해바다의 푸른빛이 일렁이는 평산리, 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은 바로 이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2015 작은미술관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1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매년 2만 명에 육박하는 탐방객들이 방문하는 바래길 1코스의 시작 지점을 알리고 있다. 따라서 다랭이지겟길에 오면 누구나 꼭 한 번씩 들러보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작은 어촌마을의 유휴공간이 생활 속 미술관으로 거듭나기까지는 평산리 주민들과, 사단법인 대안공간 마루, 남해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보건진료소의 이유 있는 변신

2015 작은미술관 사업에 선정된 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은 주민들의 아픈 곳을 진료하던 평산보건진료소가 있던 자리다. 2011년에 운영이 완전히 중단되어 4년간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 작은 어촌에 방치된 흉물로 여겨졌지만 바래길 시작점인 만큼 접근성이 좋았다. 바닷일에 지친 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기 딱 좋은 위치였다.

2015년,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소통의 통로가 되길 기대하며 리모델링 작업에 돌입했다. 건축전문가와 전시기획자, 마을 이장님, 남해군 문화예술팀의 협의를 거쳐 안전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벽체를 제거했다. 기존 치료 공간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실내에 있던 화장실을 정리하고 보일러실, 창고 등의 공간을 새롭게 정비했다. 전시를 위해 벽지 교체, 천장 개선, 전시로프와 조명 설치를 통해 그럴듯한 미술관의 면모를 갖췄다. 주민들의 방문을 언제나 환영한다는 의미로 출입문도 활짝 여닫을 수 있게 교체하고 남해바

다와 어울리는 푸른색으로 도색 작업을 마쳤다. 남해군의 예산도 함께 지원받아 외부 환경도 개선할 수 있었다. 부족한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옆 유통센터 건물 일부에 야외 화장실을 설치했다. 바래길 탐방객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고, 미술관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구조였다. 야외 벤치와 야외 주차장, 옥상 방수 작업과 실내 냉난방 시스템, 컴퓨터와 CCTV도 설치했다. 운영 단체 대안공간 마루는 최대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시설 개선에 따른 감수 작업까지 도맡았다.

이처럼 다채로운 지원 사격에 힘입어 사람들의 아픈 곳을 치료하던 공간이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문화 향유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2015년 10월 9일에 열린 개관식에는 여러 내빈과 지역 주민, 바래길 탐방객 등 70여 명이 참석해 작은미술관 개관을 축하했다. 박영일 군수는 "우리 남해의 미래는 농수축산업과 관광업을 연계하는 6차 산업입니다. 이를 위해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관광산업과 남해 섬 전체를 아트 보물섬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작은미술관 개관이 그 첫 번째로, 앞으로 예술 문화 공간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라며 남해 문화시설 발전의 의지를 다졌다.

전시를 위한 공간이 아닌, 공간을 위한 전시

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 전시는 전시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공간을 위해 기획되는 전시라는 점이 독특하다. 그래서 작가들이 남해를 투어하고, 남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그 시작을 알린 전시는 개관에 앞선 2015년 9월 19일부터 10월 3일까지 진행된 첫 전시 <보물섬>전이었다. 경남수채화회장을 역임한 작가 다섯 명이 남해바다, 다랭이마을 등 보물 같은 천혜의 자연이 있는 남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수채화로 표현한 작품을 내걸었고, 남해바다와 참 잘 어우러지는 전시라는 평

가를 받았다. 이후 개관식과 함께 10월에 열린 두 번째 전시 <land·scape 바닷바람>전에서는 여덟 명의 작가들이 남해에 체류하며 창작하는 프로젝트를 열었다. 이들은 각각 미술관 학예사, 미술학원 대표, 미술교사, 인테리어 업체 대표, 문화예술진흥원 정책부장, 아카데미 강사, 전업주부 등 창작과 직업을 병행하는 이들로, 바닷바람을 주제로 작업한 다양한 평면 작품과 입체 작품을 선보였다.

이어 11월에 열린 <여섯 개의 신호>전은 경남문화진흥원과 협업해 진행했다. 경남창작센터 제 7기 입주 작가 6인을 초대해 청년 작가들의 창작물을 가름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12월에는 <치유와 소통>전을 진행했다. 옛 보건진료소가 주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줬듯, 문화예술 치유 공간으로 거듭난 미술관이 재생된 기억을 더듬어 치유와 소통을 이루고, 동시에 청년작가들의 열정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기획전과 더불어 농번기가 끝나는 시기인 11월부터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평산1리, 평산2리 마을 이장님과 주민들이 전시 참여 청년 작가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나도 화가다'라는 제목 아래 펼쳐진 이 프로그램은 미술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체험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며 공감을 이끌어냈다.

지역 출신 작가들의 초대전을 이어가다

지역의 특색을 담은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은 사업이 끝난 2016년에도 계속되었다. 4월에는 남해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작가전 <쑥쑥>을 개최했다. 어린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일깨우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던 전시로 '제 1회 남해 설천 참굴축제의 어린이 사생대회' 수상작을 소개했다. 지역 초등학생은 물론, 학생의 가족과 친지, 친구 등 모든 세대가 즐기는 소통의 장이었다. 작품을 관람한 어린이들 중 "저도 작가가 되고 싶어요!" 하는 어린이에게는 즉석

에서 그림을 그려 미술관에 자신의 작품을 전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덕분에 이곳을 찾은 관광객과 주민들 모두 흐뭇한 모습으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다.

7월에는 경남도립미술관의 <2016 찾아가는 도립미술관>전을 진행했다. 경남도립미술관이 소장한 수준 높은 작품을 경남지역 미술관에 찾아가 전시하는 프로그램이다. 1년에 한 번씩 펼쳐지는 도립미술관 전시는 현대 미술 작품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고독자의 비판정신'이라는 테마로 채준화백의 풍자 만화와 회화 작품이 전시되어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채준화백은 일본 만화계에서 인정받는 재일한국인 1세대 만화가이자 회화 작가다. 이밖에도 허증숙 작가의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 동현스님과 전복희 작가 초대전 <민화나들이> 등 다양한 분야의 시각 미술 전시를 진행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전시들을 계기로 수준 높은 전시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길 기대하며, 현재는 남해 지역 작가들에게 특별히 공간을 무료로 대관해주는 등 작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지속가능한 공간을 위한 수준 높은 전시 기획

첫 일 년간 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은 예술적 감성과 아름다운 자연이 잘 어우러지는 최적의 환경을 통해 나름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미술관을 운영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할 때였다. 이에 따라, 2016년에도 작은미술관 사업에 다시 선정되는 기회를 잡음과 동시에 남해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수준 높은 전시 시리즈를 준비했다.

11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과거를 주제로 한 전시, <Beyond Memory>전 중 첫 번째 시리즈는 '남해의 기억에 기대져 있는 풍광'이 주제였다. 김덕천, 김희곤,

이경태, 민선미 작가가 남해를 체험한 후 기억에 기대어 남해 풍광을 기록하고 재해석했다. 두 번째 시리즈는 작가들이 역사적 사실과 자연 회복의 이미지를 소환해 작업한 결과물이었다. 이를 위해 강석천, 정종효, 김현주, 최문정 작가가 남해에 머물며 과거의 기억을 수집했고, 전시는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열렸다.

이어 12월 24일부터는 남해의 현재를 확인하는 전시 <Live Life>전의 첫 번째 시리즈가 시작됐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연계해 진행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남창작센터 7기 입주 작가를 초대했고, 이들이 현대미술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을 펼쳐냈다. 다양한 설치 작품과 회화 작품으로 젊은 감성을 표현했다. 두 번째 시리즈 주제는 '화해와 소통'이었다. 2015년 '치유와 소통전'에 참여한 작가 다섯 명을 다시 초대하여 마을주민들의 기억을 수집했다.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화해를 돕고 미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시를 구성했다. 이 전시는 특히 지역과 주민, 관광객 간의 소통과 예술 허브 역할을 하는 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의 정체성을 잘 표현한 전시로 평가받고 있다.

끝으로 남해의 미래를 그려보는 전시 <Future Lies ahead>가 2월 4일부터 한 달간 열렸다.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갖춤과 동시에 지역의 미래를 예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을 지닌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람회로 개최됐다. 일상에 대한 사유와 탐구를 보여준 이미영 작가의 'Daily daily', 거베라라는 화려한 꽃잎이 포장되는 과정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생명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김혜은 작가의 회화 작품 'Gerbera', 얽히고설킨 주변의 복잡한 관계와 감정들을 바느질로 풀어낸 심은영 작가의 'Reflection' 등 저마다의 개성이 돋보이는 진보적 작품들을 펼쳤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그려보는 이 전반의 작업을 통해 작은미술관은 현재의 위치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곰곰

이 반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이번 세 개의 기획전은 지역 주민들과 작가들, 대안 공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공간에서도 큰 메시지를 담는 훌륭한 전시를 지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작은미술관을 다녀간 사람들의 후기를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공모사업 기간 동안만 반짝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직접 해설가로 나서기도 하는 전시 공간이라 더욱 인상 깊었다"는 관람객 평, "바닷가 옆 미술관이라니, 감성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정말 낭만적 공간이었다"는 평가가 오르내리고 있다. 덕분에 이곳은 지역 작가뿐 아니라 타지 작가들에게도 대관 문의가 들어오고는 한다. 방명록 역시 무심코 산책하다 발견한 미술 공간의 매력에 흠뻑 빠진 관광객들의 아낌없는 칭찬으로 가득하다. 이는 단지 작은 동네의 유휴 공간을 개선한다는 차원을 넘어 지역민들이 소통하는 공간, 지역 작가에게 마음껏 작품을 펼칠 기회를 주는 문화예술 공간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임에 틀림없다.

남해에는 작은미술관을 계기로 작은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공간이 속속들이 생겨나는 중이다. 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은 지금까지의 긍정적인 평가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대안 공간 문화를 창발하는 훌륭한 마중물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퀄리티 높은 전시들을 묵묵히 펼쳐나갈 예정이다. 고려와 조선시대 때 남해로 온 유배객들이 절망 속에서도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듯, 따뜻하고 잔잔한 남해바다의 절경과 조화를 이루는 이곳에서 많은 작가들이 시각미술의 새로운 꽃을 활짝 피우길 바란다.

지역주민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참여 작가들의 도움으로 성장한 시간

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 기획자 | 배 부 순

평산보건진료소는 주민들의 치료 공간이자 위로 공간으로 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들던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보건소가 없어지면서 다들 서운해 하셨다고 해요. 4년간 방치되었을 때는 폐농기구와 의료장비로 엉망이었는데 미술관으로 바뀌고 정돈되니 분위기가 한결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평산리는 60대 이상의 주민들이 많은데 과연 미술관이 생기면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실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답니다. 다시 평산리 주민이 소통하는 사랑방이 된 것이죠. 타지에서 관광객들이 미술관을 방문하면 현지인의 여행지나 맛집을 알려주기도 하고 친척들이 오면 "미술관에 가보라"며 소개해주곤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때가 가장 보람 있습니다. 더구나 같은 전시가 한 달 정도 지속되면 "이제 다른 전시 설치해야 하지 않겠어?", "다음 전시는 뭐야?" 하고 재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관심 덕분에 사업 기간 외에도 다양한 전시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죠. 미술관에 행사가 있을 때는 자원봉사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남해군에서 운영하는 해설사 교육까지 받아서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설명해주는 분도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머무르면서 작품 활동을 한 참여 작가들이 미술관을 위해 작품을 기증하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 감사해야 할 분들이 정말 많네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보살피며 다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고요한 남해바다의 푸른빛이 일렁이는 평산리에 위치한
남해바래길작은미술관은 2015 작은미술관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는 다랭이지겟길에 오면 누구나 꼭 한 번씩
들러보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작은 어촌마을의 유휴 공간이 생활 속 미술관으로 거듭나기까지는 평산리 주민들과, 사단법인 대안공간 마루, 남해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2016년에도 작은미술관 사업에 재선정되는 기회를 잡음과 동시에 남해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수준 높은 전시 시리즈를 준비했다. 2016년 12월 24일부터는 남해의 현재를 확인하는 전시 <Live Life>전의 첫 번째 시리즈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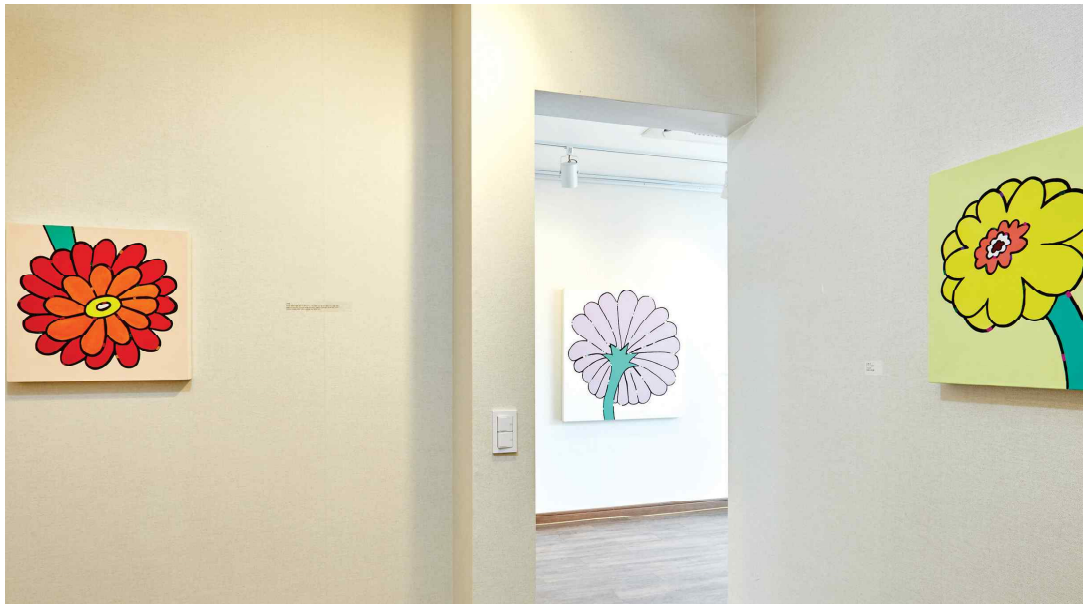
다양한 설치 작품과 회화 작품으로 젊은 감성을 표현하며 현대미술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을 펼쳐냈다.



두 번째 시리즈 주제는 '화해와 소통', 2015년 '치유와 소통전'에 참여한 작가 5인을 다시 초대하여 마을주민들의 기억을 수집했다.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화해를 돕고 미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시를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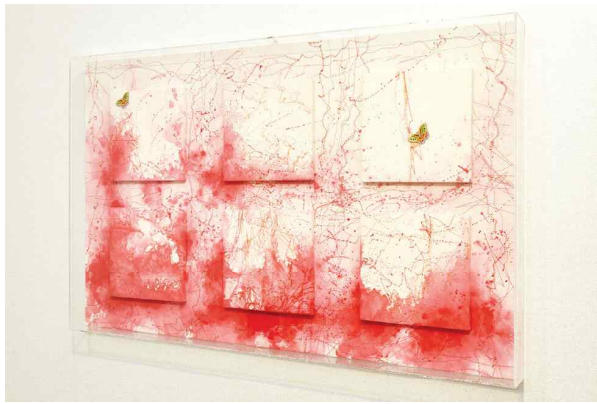












일상에 대한 사유와 탐구를 보여준 이미영 작가의 'Daily daily', 거베라라는 화려한 꽃잎이 포장되는 과정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생명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김혜은 작가의 회화 작품 'Gerbera' 등 남해의 미래를 그려보는 전시 <Future Lies ahead>가 2017년 2월 4일부터 한 달간 열렸다.

발 행 인 박명진

발 행 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빛가람동 352)
061-900-2100, 2200
www.arko.or.kr

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

취재·원고 소요프로젝트

사 진 박진주포토그래피

디자인·제작 (주)인디엔피 indnp.com

발 행 일 2017년 4월

* 이 책의 내용과 이미지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이 책은 '2016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사업' 사업비로 제작되었습니다.